

여성학연구

2024년 제34권 2호

논문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 안지영
동아시아 창조 여신 신화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 여경미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20-30대 남성의 다양성과 그 함의 | 박정오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34권 제2호 | 2024. 10.

Vol.34, No.2. | 2024. 10.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목차 |

논문

안지영 |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 7

여경미 | 동아시아 창조 여신 신화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43

박정오 |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20-30대 남성의 다양성과 그 함의 73

안지영 |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여경미 | 동아시아 창조 여신 신화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박정오 |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20-30대 남성의 다양성과 그 함의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

안지영*

| 목차 |

1. 서론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위치성'과 교차성 이론
3. 페미니즘을 말하기/말하지 않기
- 1) 교차하는 아젠다와 페미니즘 끼워넣기
- 2)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을 넘어서
4. 결론을 대신하여

| 초록 |

이 글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도 반페미니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사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며 대학 문학 교양수업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우선 수업을 설계하는 데 반페미니즘적 지식을 가진 남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구성해야 할 때 프레이리의 계몽적 교수-학습과정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교수-학습 철학이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현상이 능력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 문제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권력 체계 안에서 분석한다면 성적 억압의 문제성을 전달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인종, 계급, 민족, 시민권, 장애 유무, 나이 등 사회 억압을 구성하는 체계에 대한 비판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차성 이론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위치성 개념을 결합시켜 수업을 설계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교차성의 맥락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젠더 외에 다른 사회적 이슈를 해당 학기 수업의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빈곤, 젠더, 돌봄, 생태'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문학 작품을 다룰 때도 여성

* 경기대학교 anji0925@kyonggi.ac.kr

의 피해자성이 내세우며 남성을 가해자로서 재현하는 구도가 두드러지는 작품 대신 학습자에게 위치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교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페미니즘 전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는 줄어들었으나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이 일부 유지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차성 이론, 위치성, 페미니즘 리부트, 여성주의교육, 대학 교양수업

1. 서론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문단_내_성폭력_해시태그 운동 이후 한국 문단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간 한국문학이 여성의 존재를 타자화해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한국문학사를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다시 읽어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편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주체로 포섭되지 않은 장애인, 퀴어, 비지식인의 존재를 가시화하며 보편적 문학사를 성립시키기 위해 애써온 근대문학의 기투가 실은 타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억압함으로써 보편의 자리를 전유해온 “비장애인 이성애자 지식인 남성”의 것이었음이 성찰되었다(인아영, 2019: 94). 이러한 과정에서 문단에서는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미학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등 의문에 부쳐지지 않았던 문학의 주요 속성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문학의 젠더와 문학장 내의 폭력과 억압이 가시화”(소영현 외, 2019: 8)되기도 하였다.

또한 페미니즘·퀴어 문학으로 호명될 수 있는 작품들이 활발하게 생산되면서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적 지배질서로 환원되지 않는 현상 및 상상력을 포착하고 실험함으로써 ‘정상성’이라는 기울이 허구임을 드러내는”(오혜진, 2019: 390) 문학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증가하

게 되었다. 이처럼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에 공명하여 그간 억압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십여 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쌓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비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역시 가져왔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교실 혹은 강의실에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이민경 외, 2017; 김동진 외, 2022; 젠더연구소 이제, 2021). 이들은 단순히 페미니스트 교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은 페미니즘 교육의 가능성을 탐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강의실 안팎에 만연한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백래시의 흐름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반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는 성폭력 가해·피해자 통계 자료를 보여주자 남학생 중 몇 명이 의자를 걷어차며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고(김경옥, 2023: 1558), 한 대학에서는 ‘젠더 의무 교육’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인권 관련 교과목을 폐지하라는 항의를 함으로써 해당 교과를 ‘필수교양’ 과목이 아니라 ‘선택교양’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김민지, 2020: 28).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발언권을 위축시켜 젠더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대부분의 교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경험은 많지 않지만, 매 학기 말 강의평가에서 나온 반페미니즘¹⁾적 코멘트

1) 반페미니즘 담론은 “페미니즘을 억압적이고 특권적이라 여기며 남성혐오주의, 여성우월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남학생들의 잠재적 가해자 담론, 역차별 담론,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여성혐오적 표현, 페미니즘 동아리에 대한 공격” 등이 여

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젠더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²⁾ 실제로 이러한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젠더 문제를 아예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교수자도 있었다. 특히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다양한 전공을 지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지 않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학 강의실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면 대학이 시민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때에야말로 페미니즘을 중심에 둔 시민성 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학 기관과 교수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엄혜진(2019)은 페미니즘 지식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페미니즘 역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민정(2020) 역시 페미니즘 인식과 문제의식 없이 “생물학적 성차만을 강조하고 여성억압을 부정하며 젠더계급에 대한 이해 없이 ‘남과 여’의 조화만을 강조하는 등 페미니즘 백래시의 동태로 해석될만한 모습을 보이”는 강의도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강의실에서 “페미니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케 할 정도의 학생들이 드물지 않”으며, 이들의 존재가 “남 vs. 녀”의 성별 위계와 함께 강의를 ‘평가하는 학생 vs. 평가받는 교수자’로서의,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을 ‘고객 vs. 서비스 노동자’와 유사한 위계

기에 해당한다(젠더연구소 이제, 2021: 126). 이러한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서 발견되지만, 여학생들에게도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난다. 반페미니즘 인식을 지닌 남학생과 또래 관계를 맺을 경우 여학생 역시 이를 의식하여 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특히 강의실에서 젠더 문제를 다루는 데 교수자의 성별, 세대, 정규직 여부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1년 9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래시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젠더연구소 이제, 2021: 48).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나윤경(2022)에 의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들어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초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엄혜진, 2018).

여성학 전공자들이 이러한 격동을 체감하는 동안 대학 전반에 나타난 반페미니즘적 기류는 전공 및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다른 교수자들도 체감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대학에서 한국문학과 관련한 전공과 교양과목을 담당해오면서 이러한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였다. 특히 2023년 2학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핵심교양 교과로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라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였다. 이전 학기보다 두드러지게 반페미니즘적으로 소설을 독해하는 남학생들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와 직접 대면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최근 소설의 성과를 강의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창작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적인 지점이 나타난 것이다.

그중에서 강화길의 「호수」³⁾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해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작품 속 남성 인물을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의심하는 주인공의 진술을 부정하며, 남성 일반이 가해자로 낙인 찍혀 남성에 대한 혐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여

3)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영은 친구 민영의 남자친구인 이한과 단둘이 호수를 방문하게 된다. 이한이 호수에서 뭔가를 찾았다며 호수에 함께 가보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호수는 삼 주째 병원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는 민영이 발견된 장소다. 진영은 그 자신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일뿐더러 민영 역시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고의 범인으로 이한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황으로 그와 호수를 방문하기로 한다. 그런데 호수에 도착하자 이한은 호수에 들어가 바닥에 박혀 있는 ‘무엇’을 빼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다가 허우적대며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나’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호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 잡힌 ‘얇고 단단한 그것’을 쥐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한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식으로 소설의 결론이 모호하게 마무리된다.

학생들은 이 작품에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거나 여성을 ‘약한’ 존재로 다루는 것 같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 수업을 마치고 이러한 반응의 차이를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학생들과 토론하지 못하고,⁴⁾ 단순히 피해자/가해자의 위치가 성별에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코멘트 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수강 인원이 많은 대형강의인 만큼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없으리라고 가정하고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한 점, 아울러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이론이나 자료 등을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에 대한 피상적인 감상에 머무르게 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강의에서는 새롭게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 교육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적용가능하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보편성을 지지는 것으로 가정되어온 서구, 백인, 이성애, 비장애인 남성을 대변해온 지식이 진리로 포장되어온 역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당위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의 일상적 언어와 경험에 근거해 지식을 해체 혹은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반페미니즘적 입장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4) 이 작품을 여성소설이기 이전에 범죄소설이자 심리소설이라고 분석한 평론가 강지희는 민영을 해친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역사가 중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발생 여부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잘못된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묻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미제의 사건이 되기 쉽다. 이 소설은 미스터리 서사를 차용하는 한편으로 1인칭 소설의 주인공인 진영의 말을 독자 역시 의심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전달한다. 진영이 찾은 물건이 무엇인지, 또 진영이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소설의 모호한 결론 역시 이러한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지희가 지적하듯 이러한 점에서 “소설의 표층에서 우리는 최악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영악한 용의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여자를 마저 해치우기 위해 움직이는 잔인한 범죄소설을 읽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명백히 억압당해온 젊은 여자의 신경증적 반응들로 이루어진 심리소설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지희, 2017: 209-210).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는 강의실의 상황을 변화시켜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태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교수자가 자신이 강의실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센 반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권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이론가” (배유경, 2018: 357)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자의 권위를 재정위하는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의 목표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강의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부분 역시 존재한다. 여성학과에서 개설한 전공이나 교양과목이 아닌 만큼 문학 이론에 대한 학습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주가 되는 문학 교양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2학기 <한국문학의 이해>라는 강의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전략의 의미를 분석하고 나아가 해당 강의를 통해 얻은 통찰을 공유하려 한다.

2.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의 ‘위치성’ 과 교차성 이론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는 여러 기원을 가진다. “여성운동에서 비롯된 의식화(consciousness raising), 존 듀이가 만들어낸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전통,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등이 지지했던 ‘해방적 교수법’ 등이 그러하다(마허(Maher) · 테트로(Tetreault), 2021: 5). 그중에서도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학이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데, 이는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가 “문화의 주변부(bywaters of the culture)’에 있는 평범한 사람

들의 경험”, 특히 여성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입장에서 프레이리의 교육학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기도 하였는데, 프레이리의 저서에서는 남성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 데다가 그가 주장한 인간화 개념이 모호하고 억압의 형태가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하다. 배유경(2018)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알도록 이끄는 교사의 계급, 성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반페미니즘적 지식으로 무장한 남성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의 구성해야 할 때 프레이리의 계몽적 교수학습과정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교수학습 철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나운경(2020)은 “교수자 이외 사람들의 자기 맥락에 관한 지적 초보성을 전제로” 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교수학습 철학이 “안티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현재의 강의실 상황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여성의 피해자성을 지우고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페미니즘적 성향을 보이는 남학생들의 존재는 페미니즘 교수자들의 공통된 고민으로 부상하고 있다.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education of the oppressed)가 ‘억울해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education for the depressed)로 전유되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반페미니즘적 의식을 지닌 학습자들에 대한 구체적

5) 송현주(2002)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폐쇄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이와 다름을 구현한 정체성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여 성인교육의 장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송현주 역시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에서 강조되는 ‘위치 짓기’가 학습자와 교수자의 젠더, 인종, 계급에 의한 다름과 차이를 고려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학습자와 교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억압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의 의미를 강조한다.

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페미니즘 백래시가 발생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수반한다. 엄혜진(2018)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위기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이를 신자유주의 체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페미니즘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상이자 운동으로서 정치 윤리적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던 1990년대와 달리 지금은 ‘젠더 전쟁’,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치부되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의 불안운 분노와 혐오로 치환하여 분출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월성과 경쟁력을 갖춘 개인의 양성을 목표로 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는 이상적 시민을 ‘경쟁력 있는 개인’이라는 젠더 중립적 존재로 표상하지만, 실은 남성 주체의 특권을 유지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젠더 규범의 일부”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체제에 대한 젠더 관점의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현상을 진단한 결과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찾기보다 “능력 이외의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과 그러한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페미니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김현민·김한별, 2023). 20대 남성들이 ‘공정성’이나 ‘역차별’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반페미니즘적 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데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당연시되어온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를 무력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대 남성 학습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미덕(2016: 29)은 여성주의 강좌에서 남학생들이 보이는 저항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성은 여성주의 의식 고양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여성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회의로 지나치기보다는 여성주의 교수법과 내용의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계급 문제에 대한 관심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문제의식과도 일치한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젠더 문제를 비롯해 인종, 계급, 민족, 시민권, 장애 유무, 나이 등 사회역압을 구성하는 체계에 대한 비판 작업을 수행한다. 젠더에 복잡한 의미를 부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성적 역압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강의실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과정을 기술한 책에서 저자들은 “학생들이 백인과 ‘중산층’을, 흑인과 ‘빈곤층’을 혼동”하는 사례들을 보고하며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는 불리하고 인종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두 가지 위치를 모두 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계급의 문제는 인종, 젠더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상향 이동 가능성(또는 하향 이동 가능성), 아메리칸 드림의 엄격하고 위계적인 요구”등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마허·테트로, 2021: 302).

젠더 문제를 정체성 정치의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권력 체계 안에서 분석한다면 성적 역압의 문제성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지닌 학습자들에게도 이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집단 내 차이를 뒤섞거나 무시하는 정체성 정치와 달리 “차이를 억압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정체성 정치를 쇄신하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권수빈, 2022: 460)을 모색하는 교차성 이론을 참조하여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수업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교차성은 특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위치성(Positionality)’ 개념과 관련하여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개인의 위치성은 “움직이는 관계들의 네트워크의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마허·테트로, 2021: 270) 즉 학생들이 자신이 있는 특정 교실과 학교에서 자신이 지배 문화와 맺는 관계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한다는 점에 착안해,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위치성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 역시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강의실 내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교실에서 위치성은 영향을 미친다. 선생이든 학생이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 추측하고 갈망하고 직접적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토대를 허물고자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그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교실의 조건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들이 삶에서 위치성 역할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제3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면, 학생들은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마허·테트로, 2021: 33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위치성 페다고지’라고 바꿔 부를 정도로 위치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지식은 결코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논의된다. “모두 정도가 다른 위치성 지식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자든, 학습자든 “자신의 관점이 어느 의미에서는 파편적이고 서로 상반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기반한 토대를 허물고 “제3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상황적 지식 주체(situated knower)⁶⁾’ 개념을 활용하여 지식의 사회학이 가진 위치적·

6) 해러웨이(2023: 340-350)는 “자기-동일적이며 표지가 없고, 탈체현되고, 매개가 없으며 초월적” 성격을 띠는 객관성을 지배자의 입장을 차지한 자들의 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환상이고 왜곡이며 따라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달리 페미니스트 객관성은 ‘상황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체현된 객관성(embodied objectivity)”으로 설명된다. “페미니스트 객관성은 한정된 위치(location)와 상황적 지식에 관한 것이지, 주체와 대상의 초월과 분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

구성주의적 전통과 위치성 페다고지의 의의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중심을 두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의 상대에게 감정어입하여 대화할 수 있”(권수빈, 2022: 470)게 되며, 해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체성 정치를 쇄신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상황적 지식’, ‘페미니스트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나 해러웨이가 참고한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 샌드라 하딩(Sandra G. Harding)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문화의 배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비롯해 다른 해방적 운동에서도 “지식의 주체나 행위자는 다중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하딩(2009: 409-411)은 페미니스트 입장론 논리가 세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 지식의 주체로서 “여성들”이라는 집합이 지닌 다중성에 주목한다. “부자 또는 가난한 자, 흑인 또는 백인, 이탈리아인 또는 중국인, 이성애자 또는 레즈비언” “과학 지식의 생산자 대 소비자, 딸 대 어머니이기도 한 자” 등 상충되지만 각자는 잠재적으로 페미니스트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 또 입장론의 논리는 해방적인 페미니스트 지식의 주체가 또한 다른 모든

로, 우리는 보는 방법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적 지식에 대한 해러웨이의 서술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서 강조하는 ‘위치성’의 문제 의식과 일치한다.

- 7) 하딩은 이 글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인간이 아니더라도 해방적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페다고지’의 문제의식을 보충한다. “얼핏 보기에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또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교실의 바로 그런 학생들은 (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들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과 우리의 학생과 동료들 중 유렵계, 남성, 이성애자, 경제적 기득권층을 기본적으로 허구적이며 소극성을 유도하는 죄책감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경향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격려할 수 있을까?”(하딩, 2009: 39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딩은 선구적으로 교차성 이론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A Black Feminist Statement)”을 인용하며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진 지식”과 연관된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진 정치”의 출현을 요망한다(하딩, 2009: 393-394).

해방적 지식 기획의 주체가 되기를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지식의 유일한 생산자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

하딩은 ‘반역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차적 저항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교육학적 접근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교육학적으로, 이런 접근법은 우리 학생들과 동료들에 힘을 불어 넣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사회적 상황들로부터 해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는—정중하게, 잠정적으로, 하지만 단호히—다양한 해방적 사회운동들간에 연속성들을 창조하고 그들간에 진보적인 관계를 장려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 요점은, 여성들은 개개인 남성들과, 제3세계 출신 사람들은 개개의 백인들과, “결합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운동들이 “단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실행 가능한 의제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 그런 단결들을 만들어 내는 도전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도전에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적 운동들의 지식추구와 정치적 기획들은 지배문화를, 그들이 그로부터 기법들을 배우지만 또 거기에 대항해서 그들 자신의 의제를 규정할 수 있는, 이질적이고 기이한 전통들로 재창조했다. 과도하게 혜택 받은 집단에 속하는 우리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우리자신들을 “타자”로 재창조하는 것보다 민주적 사회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나은 대인이 무엇이 있겠는가?(하딩, 2009: 423-424)

“젠더와 이성애는 물론이고 계급이나 인종이라는 사회적 구조에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마허·테트로, 2021: 367-368) 학생들에게 위치성 페다고지를 통해 사회적 범주에 도전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해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며 가부장제가 공고한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남성 학습자들에게도 위치성 페다고지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온 지식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급적 특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위치성을 점검함으로써 정체성 정치의 뒷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 우선’을 내세우며 젠더 기반 정체성 정치를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 역시 이러한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만을 절대시하여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여성들” 안의 차이를 외면하게 만든다.⁸⁾

아울러 하딩이 지적하듯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치성에 기반한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해방적 사회운동들간에 연속성들을 창조하고 그들간에 진보적인 관계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이 아닌 행위자들이 각자 처한 다중적인 상황에 기반한 “단결”에 의해 민주적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 위 인용문에서 강조하듯 이는 ‘우리 자신을 타자로 재창조하기’라는 불/가능한 과업에 의해 가능하다. “사실은 선택사항일 뿐인 사회 제도들을 자연스럽게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상식’을 대신하여 페미니스트 이론의 렌즈로 삶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하딩, 2009: 411). 차이를 횡단해서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지대 밖에서 작업하는 것, 차이로 인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 실천, 원칙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⁹⁾

8)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이 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교조화되는 과정에서 자칫 동일성에 담론이 포섭되어 주변부에 있는 타자의 얼굴을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이효민(2019)은 ‘여성 우선’ 페미니즘을 표방하며 트랜스 젠더와의 연대를 거부하고 혐오 담론을 재생산하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9) 케이퍼(2023: 377-379)는 ‘연합 정치(Coalition Politics)’에 대한 버니스 존슨 레이건의 말을 가져와 교차성에 기반한 연대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케이퍼는 연합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서로 다른 쟁점과 정체성 간의 상호 관계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관점이나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토대로 삼는 가정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종종 우리가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레이건은 “금방이라도 쓰러져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 성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전략을 개발해왔다. 특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생산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문학 전공자에게는 고무적인 사실이다. “문학 분야는 대안적 분석과 해석에 우호적인 편”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텍스트 읽기를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이성을 연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마허·테트로, 2021: 344-345). 다만 작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텍스트 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텍스트 내적인 차원의 분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작가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실제 강의를 설계하고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한 경험을 소개하며, 특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전략들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죽을 것 같다. 만약 실제로 연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흔히 겪는 느낌이다. 대부분 모든 방면에서 위협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실제로 연합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연합 정치의 어려움을 산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 10) 이와 관련해 엄진주(2024)는 “교차적 소설 읽기”를 제안한 바 있다. “교차적 소설 읽기는 텍스트 속 허구 세계에 나타나는 교차성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차원만 아니라, 교차적 인식을 바탕으로 서사적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아우른다.” 엄진주는 교차성 개념을 소설 읽기에 적용하기 위해 소설 독자의 역할을 이야기와 담론의 중층 구도 속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들에게 문학을 가르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 페미니즘을 말하기/말하지 않기

1) 교차하는 아젠다와 페미니즘 끼워넣기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해 대학 교양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수강생의 인원이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양 수업의 특성상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과 관련한다. 첫째, 대학교 교양수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재정위기로 인한 대형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양 수업에서도 수강정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강의식 수업은 어느 한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위치성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작용적 수업 방법과 맞지 않는다”(마허·테트로, 2021: 346)는 지적을 참고할 때 대규모로 진행되는 교양수업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대학 강의실이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토론이 이뤄질 정도로 ‘안전한’ 공간인가와 관련한 문제다. 대형 강의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려면 조별 소그룹 활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학생들이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주고받을지에 대한 교수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할 때 주변부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도 강의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은 교수자의 역할 중 하나다(엄혜진, 2018: 13). 하지만 극심한 젠더 갈등으로 특히 온라인에서 남녀 간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온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한편으로 김미덕(2016: 32-33)은 “여성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주의에 동감이나 지지를 표명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중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방관자적 위치에 서려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을 강의식으로 진행하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중간중간에 학생들 각자에게 3~5가지 질문이 있는 활동지에 대한 답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 시간에 PPT로 정리해서 익명으로 소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¹¹⁾

한편으로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교차성의 맥락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젠더 외에 다른 사회적 이슈를 해당 학기 수업의 아젠다(agenda)로 제시하였다. '빈곤, 젠더, 돌봄, 생태'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3주씩 총 12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였으며,¹²⁾ 각 주제에 대한 강의가 마무리될 때마다 학생들이 3쪽 분량으로 총 4회 성찰적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빈곤'과 '젠더'에 대한 전반부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였고, 후반부 강의에서 '돌봄'이나 '생태' 문제를 다루면서 앞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또 각 주제에 대한 3주씩의 강의는 1주차에 먼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2주차에 해당 주제와 관련한 논픽션 읽기, 3주차에 해당 주제와 관련한 소설을 읽고 분석하는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한 이후 해당 주제와 관련한 비문학 에세이¹³⁾를 읽는다면 다중적인 관점을 형성

11)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식 교육보다 대화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강생이 많은 대형 강의를 주로 맡게 되는 상황에서 수강생 수를 이유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하기를 단념하는 것 역시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토의·토론식 수업을 무조건 고수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상황에 맞게 모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12) 네 가지 아젠다는 교양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지식과 관련되는 내용보다는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교수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교수자의 이전 학기 강의 경험,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을 고려하여 아젠다를 선정하였고 학생들에게는 학기에 따라 아젠다 역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해당 학기에 총 수강 인원은 55명이었으며, 수강생 분포를 보면 한국인 여학생이 24명, 남학생이 27명, 그리고 외국인 여학생이 2명, 남학생이 2명이었다. 전공 분포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예술계열, 공학계열, 경영 및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골고루 수강하였다. 먼저 1주차 수업에는 수업 전반을 소개한 후 학생들의 흥미도를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

<표 1> 수강생 전공 분포

단과대학	인원(명)
예술대학	11
창의공과대학	19
경영대학	7
자동차융합대학	7
사회과학대학	6
체육대학	4
과학기술대학	3
조형대학	3
글로벌인문·지역대학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
경상대학	1
종합	55

- 13) 엄진주(2024: 194)는 사회적 관점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비문학 텍스트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다중텍스트(multiple-text comprehension) 읽기는 대상 소설을 교차적으로 읽는 데 ‘비계(scaffolding)’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세이와 같은 논픽션 장르는 상황적 지식과 관련해서 “지식의 주제나 행위자는 다중적”(하딩, 2019: 405)일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차별 수업계획을 보고 가장 흥미가 있는 주를 선택하고 해당 주차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또 이번 학기 강의에서 바라는 바를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빈곤 문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을 읽는 4주차가 기대된다는 학생이 10명으로 22.7%를 차지하였고, 생태 문제를 다루는 13주차에서 「꼬마 돼지 베이브」, 「P짱은 내 친구」, 「잡식 가족의 딜레마」라는 세 편의 영화를 비교하는 내용을 선택한 학생이 8명으로 18.1%였다.

4주차를 선택한 학생들은 장강명의 소설 「알바생 자르기」에 대한 줄거리 소개를 듣고 자기 경험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서 이를 선택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PPT 자료에서 <표 2>로 정리한 주제별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청년 빈곤’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표하였다. 이로써 4주차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로서 ‘빈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13주차를 선택한 학생들은 영화라는 매체가 지니는 친밀감을 표하는 경우와 생태 문제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등을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싶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젠더와 돌봄 이슈를 다루는 5주차와 9주차도 각 6명(13.6%)의 학생이 선택하는 등 각 주제에 고르게 관심을 표하였는데, 젠더와 돌봄 문제에 대한 문학 작품을 다루는 주차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은 점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표 2> 강의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주제	키워드
빈곤	불평등, 청년 빈곤, 기초수급자, 복지
젠더	남성성, 노동, 가부장제, 자본주의
돌봄	가족, 의존, 부양 의무, 출생률
생태	히로시마, 방사능 오염수, 비건(채식), 인류세

강의를 설계하고 진행하면서 짠 주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페미니즘을 말하기/말하지 않기’라는 것이다. 교수자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고 네 가지 아젠다 중 하나로 젠더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전략적으로 페미니즘을 말하지 않기를 선택한 부분이 있었다.¹⁴⁾ 빈곤, 젠더, 생태, 돌봄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한 것 역시 그러한 전략 중의 하나였다. 이들 주제는 페미니즘의 이슈를 교차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젠더적 맥락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페미니스트적 실천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젠더 이슈를 다루는 주차에는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하면서도 헤게모닉 남성성을 가지지 못한 남성 주체가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을 여성의 피해만을 절대시하며 남성을 가해자로 모는 남성혐오주의, 혹은 여성우월주의로 이해하는 반페미니즘적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먼저 강의에서 다룬 네 가지 주제는 젠더 문제를 다루는 부분 외에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해당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다루면서 교재로 사용한 조문영의 『빈곤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남성 노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부분¹⁵⁾이라거나 강지나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14) 김동진(2022: 168-173) 역시 ‘페미니즘’, ‘젠더’, ‘여성’ 같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도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과는 무관한데, 그 역시 강의 첫 시간부터 자신을 “페미니스트 교육자”라고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5) ‘빈곤의 인류학’이라는 학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문영(2022: 337-341)은 페미니즘과 빈곤과의 접합의 문제에 학생들이 자신보다 훨씬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폭넓게 확장하여 접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눈뜬 계기로 페미니즘 공부를 언급할 만

어른이 되는가』에서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문제¹⁶⁾를 다루면서 빈곤이라는 문제를 젠더적 맥락 안에서 사유하고자 하였다. 안온(2023)의 『일인칭 가난』은 빈곤 문제를 청년 여성의 시선에서 이야기한 에세이로, 자신의 가난을 “2000년대의 가난이고, 어리고 젊은 가난”이라고 명명하는데, 빈곤 문제를 1인칭으로 서술한 청년 세대의 경험적 서술이라는 점에서 학생들 역시 관심을 보였다.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대학 시절의 경험, 낡고 지저분한 기숙사 생활과 LH 대학생 세어 하우스에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 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책은 빈곤을 젠더 문제와 연관시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을 말하기/말하지 않기’라는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텍스트였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소호는 첫 시집에서 한국의 가부장제와 가난 사이를 사실적 장면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시집에서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다이즘을 시도했다. 실험적 기법이 여인 시상은 우리 현실이 시보다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했다. 올해 4월, 이소호는

끔 페미니즘에 대한 최근 대학생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체성 정치의 뒀에 간혀 피해자성에 함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에 조문영은 “페미니즘의 너른 관심을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확장해온 학생들이 빈곤의 공론장에 진입한 뒤에는 ‘남성 홀리스’라는 문제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멈춰 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빈곤운동에 대한 관심이 여성주의적 실천을 모색한 활동가들의 생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수업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함께 다루면서 강의에서 다룰 네 가지 주제가 서로 교차하고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16) 이 책은 강지나(2023)는 여섯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수업에서는 그중에서 학교를 중도 하차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탈학교 후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여성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상대에게 호소해야 이롭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는 나중에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남성 청소년이 가출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젠더 문제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시집을 냈다. 젠더·가난·예술이 흑처럼, 종양처럼, 열매처럼 서로를 증식시키는 이 시집에서 내가 제일로 꼽는 시는 〈손 없는 날〉이다.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타이핑 해 문자로 보냈다. 엄마의 답장은 빨랐다. **앞의 절반은 다 내가 했던 말이네. 시인이 여자가?** (강지나, 2023: 75, 강조_원문)

나는 가난을 말할 때 가족을 맨 뒤에 배치한다. 가족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게 됐지 따위의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한 가족과 가난을 세트 취급하는 클리셰가 지겹다. 내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교통사고, 알코올중독,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임금, 젠더폭력 및 가정폭력과 세트였다. 날 불행하게 했던 것은 교통사고, 알코올중독,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임금, 젠더 폭력 및 가정폭력이(었다). (강지나, 2023: 116)

에세이의 저자가 페미니스트로서 빈곤에 대한 문제를 예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젠더 문제를 빈곤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이 문학 수업이었기 때문에 시를 함께 읽고 시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었던 점도 이 텍스트를 선정할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에세이에 인용되지 않은 이소호의 시 「손 없는 날」을 유인물로 배포하여 학생들과 읽은 후 이에 대한 비평문을 공유하였다. “이소호 시인이 소환한 ‘딸’의 목소리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부장제를 예리하게 포착해 고발한다. 여성은 이 가부장적 정상가족의 구조 안에 배척된 존재로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는 한편, 가족 내 다른 여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달리, 2023)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이소호의 시와 안온의 에세이를 관통하는 가부장제 대한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빈곤뿐만 아니라 젠더 문제 역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였다. 자신의 가난을 “교통사고, 알코올중독,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임금, 젠더폭력 및 가정폭력과 세트”라고 지적하며 빈곤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에세이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젠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젠더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차하는 억압의 실상을 학습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페미니즘이 단순히 성별 이분법에 갇혀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을 넘어서¹⁷⁾

젠더 문제를 하나의 아젠다로 분리하여 다루기는 했지만, 빈곤, 돌봄, 생태 등의 주제들은 모두 젠더 문제와 관련된다. 다만 주제를 분리해서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였을 때 젠더 문제의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관련지어 페미니즘을 말하는 한편으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가령 수업에서 교재로 다룬 최태섭의 『한국 남자』의 경우 여성이 처한 차별적 현실을 환기하는 데는 유용하였지만, ‘한국 남자’를 일반화하여 비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 남성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너희는 틀렸다고 지적하는 계몽적 접근은 그렇게 일반화된 남성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 이들이 왜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이면을 들여다보는 한편으로, 이들이 자신이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억압의 교차성, 다중성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젠더 문제 외에 인종, 계급, 민족, 시민권, 장애 유무, 나이 등 사회 억압을 구성하는 체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이후에 인용하는 학생들의 글은 학기 중에 반 전체에 연구 의사를 밝히고 자료 활용에 동의를 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에 ‘남성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문제라고 보는 편견을 깨고 이것이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표 2〉 참조). 5주차에서 다룬 스키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을 통해 ‘약자 남성’¹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 혐오, 약자 혐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약함(취약성)’ 자체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약자 남성의 존재를 언급하면서도 이들을 ‘인셀’과 구분하며 약자 남성의 존재론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키타의 주장은 자신을 ‘약자’로 동일시하는 남성에게도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 18) 허윤의 『남성성의 각본들』은 남성 주체가 믿고 따라야 할 판타지처럼 여겨지며, 가부장적 본질로 통용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통해 남성성 안에도 위계가 존재하며, 이것이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혐오, 동성애 혐오 등으로 발현되며 한국에서는 군사주의와 관련됨을 지적한다(허윤, 2021: 261-263). 이 책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지배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 남성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승인하지만, 초남성적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는 스키타의 ‘약자 남성론’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스키타의 약자 남성론이 단순히 남성도 약자라는 식으로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남성성 안에 있는 위계 구조, 그리고 그러한 위계 구조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나아가 스키타는 남성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인셀(involuntary celibate의 약자로, 원치 않는 금욕주의자, 비자발적 싱글이라는 뜻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키타의 논의는 ‘돌봄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스키타 자신이 중증심신장애인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관련 인터뷰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공유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장애 시민 불복종』의 저자이자 장애인 활동가 변재원의 인터뷰 영상을 수업 중에 함께 시청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Zo0UKkopQA>). 해당 인터뷰에서 변재원은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건요. 이 사회가 커다란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안에서 최약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손에 무기랄까요? 뭔가 대단하게 쥐어지지 않으면 저는 다음 게임에서 탈락할 게 분명한 사람인 거죠.”라면서 ‘남성’이지만 ‘장애’가 ‘비정상’ 취급을 당하는 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이 인터뷰는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착한’ 장애인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나쁜’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과정을 보여주며 주변부적 정체성을 연대의 동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힘을 획득하는 과정(empowerment)에 도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표 3〉 젠더 관련 주치의 대상 텍스트

주차	주제	대상 텍스트
5	한국 문학과 젠더(1) - 이론	최태섭 『한국 남자』 / 스키타 슌스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 /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6	한국 문학과 젠더(2) - 논픽션 읽기	천현우 『셋밥일지』 / 이소진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7	한국 문학과 젠더(3) - 픽션 읽기	강화길 『음복』 / 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 / 이서수 『젊은 근혁의 행진』

이소진(2023)의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을 다루면서도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을 비판하며 교차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책은 청년 여성을 옹아매는 가족주의,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여성들의 자살 문제가 신자유주의나 계급, 노동이라는 경제적 구조와 가부장제에서 기인한 성차별적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와 더불어 청년 여성의 자살률 급증 원인을 분석하면서 의외로 ‘페미니즘의 부상’을 이야기한다. 2016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담론이 확산되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균열을 내기보다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동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결합하는 ‘신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노력에 대한 강박, 성과를 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혐오 등 여성청년의 자살 원인으로 지목된 청년 여성들의 자기 서사는 페미니즘을 말하기 위해 페미니즘이 처한 지반으로서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능력주의와 결부된 신자유주의 페미니즘 흐름에서 연애와 결혼의 거부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결혼을 통해 가정영역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과 달리 청년여성의 자살률 증가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낳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설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작품에 대한 분석에서도 남녀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의 경우 전형적인 분석에 머물러 젠더 문제가 지닌 복잡성을 드러내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가령 이전 학기 강화길의 「호수」에 대한 분석에서처럼 남성을 가해자로 보는 것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감과 여성이 범죄의 희생자라면 재현되는 상황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력감은 모두 텍스트에 대한 그 이상의 분석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데 그칠 수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젠더 갈등에 대한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젠더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여성의 피해자성이 내세우며 남성을 가해자로서 재현하는 구조¹⁹⁾가 두드러지는 작품은 배제하였다. 친족 관계에 내재한 젠더 위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성 역할을 넘어선 가부장제의 복잡함”(김미덕, 2016: 47)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강화길의 「음복」을 선정하고, 성별 분업이 뒤바뀌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송경아의 「나의 우렁충각 이야기」를 통해 돌봄 노동의 젠더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서수의 「젊은 근희의 행진」을 통해서도 ‘K장녀’의 책임감이 유사 가부장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면화된 여성 혐오를 넘어설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젠더 문제를 남녀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학습자에게 위치성에 대한 자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 정체성이 다양한

19) 이는 여성의 억압이라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보다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 이후를 모색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데서 그치는 페미니즘을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하며 그 이후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권김현영 외, 2018: 10). 이 책에 실린 「피해자 정체성 정치와 페미니즘」에서 정희진은 “젠더의 역사의 회당의 정치였으며, 처음부터 젠더는 그 자체로 복합적이었다”라며 “가부장제 사회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억압받지도 않고,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요인들에 의해 교차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함께 작품을 읽으며 함께 이해한 후 학생들은 이 문제를 성찰적 글쓰기에 적용하여 젠더 문제의 복잡성을 사유하게 되었다. 다음은 젠더 문제와 관련한 강의가 끝난 후 여학생이 제출한 성찰적 에세이이다.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자면, 남성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자’처럼 노력하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욕을 쓴 적이 없다. 고등학생 때 나는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과 더 친했는데, 내가 욕 쓰는 걸 진짜 싫어했다. 그 친구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가 어쩌다 한번 욕을 쓰면, ‘여자는 욕 쓰는 거 아니다. 여자애가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 남자들이 싫어한다. 정떨어진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욕을 써 본 적 없다. 정말로 욕을 한마디라도 쓰면 남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 같아 무서웠던 것 같다. 내가 조금만 여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장난식으로 “야 너 페미야?”라는 말을 들었다. 장난식이라고 하지만 ‘페미니스트’를 싫어하는 듯한 발언들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나도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하는 게 익숙해졌다. 남자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좋은 점도 많았다. **그 이점들을 나도 모르게 이용한 적도 많았던 것 같다.** (중략) **나를 여자라고 배려해 주면서도 ‘여자’의 성격적 단점에 대해 욕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된 모습이, 웃기면서도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무의식중에 남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업 중에 인터뷰를 읽으며 스키타 쉰스케의 언런(unlearn)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뇌리에 꽂혔다. 스스로에는 관대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겪어온 경험에 빚대어 편향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조_인용자)

이 학생은 수업주제가 ‘젠더’라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먼저 고백하였다. 수업을 통해 자신 안에 내재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자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해 왔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에세이에는 남성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틀에 막힌 ‘여성성’을 수행해 온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아울러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또래 집단의

분위기가 자신이 사회적 이슈, 특히 젠더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위 글은 학습자를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로 보고 학습자의 경험한 지식에 기반한 이론화 과정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실천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남성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모습을 반성하면서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 역시 그로 인한 이점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인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위치성을 자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수자든 학습자든 자신의 관점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기반한 토대를 허물 때 “제3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다소 자조적인 어투로 서술했지만 “스스로에는 관대할 수밖에 없고, 내가 겪어온 경험에 빚대어 편향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고백은 구성주의적 전통 속에서 지식을 해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주체에게 해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지식을 생산하는 구체적 조건을 드러내는 가치를 강조”(갤럽, 2023: 50)하는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관련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 객관성이나 상황적 지식을 보여준다. 지식의 전문화가 지식과 세계의 연결을 거부한다는 점을 비판해온 페미니스트 학계는 개인사와 이론을 결합하는 작업에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사적인 글쓰기를 이론에 끌어들이 젠더 규범의 해체를 시도하는 이러한 글쓰기는 비단 지식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실천을 통해 생산된 학습자들의 글쓰기는 사적인 경험을 이론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지배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남성중심적 이론을 해체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학습자가 지배 질서에 의해 부여받은 정체성을 대신해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교차성에 대해 강의하며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이나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전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는 누

그러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극단적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래는 “스기타 슌스케의 약자 남성론은 다수자 남성,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에도 끼지 못하는 약자 남성이 안티활동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례를 서술해보자.”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다.

(가)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해 한다.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를 형성하려 한다. 최근에 유튜브 ‘○○이방승’에서 자신은 도태된 남성이라 이쁜 여자를 만나지 못해 세상에 불공정함을 느낀다면서 연애 추천제를 나라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남녀 모두에게 모두 욕을 먹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중 소수 남성들이 저 도태된 남성이라 주장하는 말에 공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안티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나) 저는 대학 시절에 학교 내에서 소수자로서 혐오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안티 활동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약점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자 남성으로서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약자 남성을 비하하기 위하여 ‘도태남’, ‘한남’ 등의 언어로 비하한다. 이러한 남성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빠져 서로 위안을 얻으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키워나가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이트와 서로 인터넷에서 설전을 벌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즉 점점 더 서로가 지하화되며 혐오를 양산한다.

스기타는 책에서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활동지 답변을 통해 한국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었다. (가)는 수업을 진행할 당시 문제가 된 유튜브의 발언을 수업 내용과 연결하여 문제의식을 확장한 경우이다. 이

학생 외에도 이 유튜브의 발언과 이에 대한 지지를 인셀 남성의 안티 활동과 관련지어 의견을 낸 학생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나)에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학생의 답변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약자 남성’ 당사자의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소유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재를 이러한 고백적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약자 남성론으로 수업을 하면서 우려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남학생들이 ‘약자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피해의식을 합리화하거나 이를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다)의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말하면서 약자 남성과 페미니즘을 모두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다)에서 언급된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이트’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등의 표현은 다른 학생들의 글에서도 종종 언급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반페미니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들에게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고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수자는 ‘예외’지만 여전히 극단적 페미니즘은 문제라는 식으로 반페미니즘적 인식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어떠한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페미니즘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점 역시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반페미니즘적 인식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차성의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 교차성 이론은 학생들이 젠더 문제를 포함해서 빈곤, 돌봄 등의 문제를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적 에세이의 일부이다.

(라) 실제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누가 더 약자이고 누가 더 불쌍한가를 평가해 점수를 낼 수도 없다. 이는 인종과 성별, 재산이나 직업 등 수많은 요소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복합적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 억압을 받는다. 이를 교차성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차성 이론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네가 남자니까, 여자니까, 흑인이니까, 라고 단정해버리면 그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마) 왜 하필 '연대'여야만 하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약자들끼리 연대하지 않고 각자 서로 잘 사는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말 할 수도 있다. 왜 굳이 사이가 좋지 않은 약자들끼리 붙어 연대를 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사실 나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했다. 소수자끼리의 연대가 왜 당연히 여겨져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 주 하나였다. 사실 세상엔 소수끼리 연대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 근데 이들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소수에 해당하는 작은 목소리에 누가 관심을 기울일까. 연대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또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소수자끼리 연대한다는 것이 허황되고 현실을 읽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엔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약자 남성이 여성을, 약자 남성의 안티와 인셀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다른 집단을 향해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회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함께인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 남성과 여성은 '연대'를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젠더로 인한 갈등이 그나마 덜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강조 인용자)

(라) 글은 교차성 이론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교차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누가 더 차별을 받았는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라)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복합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실제로 교차성은 젠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다. 예를 들어 교차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천현우의 『씻밥일지』를 통해 전문대를 나와 지방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의 사례를 ‘약자 남성’의 맥락에서 연결하는 한편으로 천현우가 신문에 쓴 칼럼²⁰⁾ 내용을 분석하며 젠더에 대한 관점을 결여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성찰적 에세이를 쓴 학생은 이 칼럼에 비혼 여성 청년의 입장이 누락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작가에게는 청년의 범주 속 남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청년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이고, 개인으로 시작해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바꿔나가기야 하는 것이다. 지방 총각이 결혼하고 싶은 만큼, 비혼을 외치고 싶은 여성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교차성에 기반해서 혐오 문제를 사유한 결과 혐오 문제의 본질이 젠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성)에 대한 혐오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대를 제시하였다. (마)는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약자 남성과 여성의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마)를 쓴 학생은 위 글을 시작하며 자신이 여성으로서, 아이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

20) 천현우. 2022. “지방 총각들도 가정을 꿈꾼다.” <조선일보>. 2022.9.14. 이 칼럼에서 천현우는 서비스직 등의 여성이 많이 차지했던 일들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성비의 균형은 깨졌고, 지방에는 여성보다 남성 인구 수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 만들어졌다. 작가는 앞선 내용으로 인해 지방 총각들은 대부분 결혼을 원하고 가정을 꾸리려 하는데, 이성의 비율이 적어 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이러한 관심이 낙인으로 바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차성 이론에 대해 배우며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닌, 그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그들 앞에 놓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안 되는 것일까? 난 이 글을 통해 약자끼리의 경쟁과 혐오가 아닌 연대가 필요함을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문제의식을 밝힌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교차성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천하는 것이 “지식의 주체나 행위자는 다중적”(하딩, 2019: 405)일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일깨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페미니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을 일깨우고 학습자가 자신의 위치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타자와 연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지나. 2023.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파주: 돌베개.
- 강지희. 2017. “처음에는 오피리아로, 다음에는 세이렌으로.” 임현 외. 『2017 제8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파주: 문학동네. 205-212.
- 갤럽, 제인. 2023.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김미연(역). 서울: 현실문화.
- 권김현영 외. 2018.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서울: 교양인.
- 권수빈. 2022. “공동체를 다르게 사유하기: 교차성과 탈정체화를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50: 447-492.
- 김경옥. 2023. “과학소설을 활용한 페미니즘 교육.” 『인문사회21』 14(1): 1557-1569.
- 김동진 외. 2022. 『지금 시작하는 평등한 교실』. 파주: 동녘.
- 김미덕. 2016.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들』. 서울: 현실문화.
- 김민정. 2020.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내 ‘성(性) 강’의 지형 탐색.” 『한국여성철학』 33: 143-181.
- 김민지. 2020. “1990년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문학 비평의 접점: 조한혜정의 『글 읽기와 삶 읽기』를 읽고.” 『한국여성학』 36(1): 27-57.
- 김현민·김한별. 2023.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의식 학습과 전환학습.”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3(2): 651-667.
- 나윤경. 2020. “(반)페미니즘 ‘프로’들의 세상에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20(12): 25-28.
- _____. 2022. “반페미니즘 안정화 시대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 실천적 기의 구성과 ‘선한’ 윤리로서의 페미니즘 가르치기.” 『페미니즘 연구』 22(2): 33-77.
- 마허, 프랜시스·테트로, 메리. 2021. 『젠더, 인종, 계급, 권력이 교차하는 페미니스트 교실』. 전제아(역). 서울: 학이시습.
-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18(1): 345-376.
- 소영현 외. 2019. 『문학은 위험하다』. 서울: 민음사.
- 송현주. 2002.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3): 1-28.
- 안 온. 2023. 『일인칭 가난』. 서울: 마티.
- 엄진주. 2024. “현대소설의 교차적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혜진. 2018.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 34(3): 1-37.
- _____. 2019. “대학 여성학 교양교육 연구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역사와 현재성.” 『한국여성학』 35(3): 113-147.
- 오혜진. 2019.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파주: 오월의봄.
- 이민경 외. 2017.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해』. 파주: 동녘.
- 이소진. 2023.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파주: 오월의봄.
-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159-223.
- 인아영. 2019. “눈물, 진정성, 윤리 - 한국문학의 착한 남자들.” 『문학동네』 26(4): 89-102.
- 젠더연구소 이재(편). 2021. 『페미니즘 교육은 가능한가』. 서울: 교육공동체벗.
- 조문영. 2022. 『빈곤 과정』. 파주: 글항아리.
- 케이퍼, 엘리슨. 2023.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이명훈(역). 파주: 오월의봄.
-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파주: 나남.
- 해러웨이, 도나. 2023.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황희선·임옥희(역). 파주: 아르테.
- 허 윤. 2021. 『남성성의 각본들』. 파주: 오월의봄.

(2) 신문기사·잡지

- 달리. 2023. “딸이 말하기 시작했다… ‘스위트 홈’의 민낯.” 〈일다〉. 2023.5.24.
<https://www.ildaro.com/9635> [검색일: 2024.9.9.]

Abstract

Applying Feminist Pedagogy in a Intersectionality Context

Ahn, Ji-Young
(Kyonggi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eminist pedagogy in university literature liberal arts class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applying feminist pedagogy to the actual class, a case of applying the strategy of ‘to speak/not to speak of feminism’ to the class was presented. It was referred to designing the class by combining the concept of ‘location’ of feminist pedagogy with intersectionality feminism that can help perform critical tasks on the systems that make up social oppression, such as race, class, ethnicity, citizenship, disability, and age. In addition, social issues other than gender were presented as an agenda so that students could think about gender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sectionality.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class focusing on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interse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tmosphere of antagonizing feminism in general decreased. However, it still left a limitation in that it confirmed that some prejudice against feminism was maintained.

Key words: feminist pedagogy, intersectionality feminism, location, radical feminism, feminist education, College Literature Classes

- 투 고 일 : 2024년 9월 10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25일

동아시아 창조 여신 신화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여경미*

| 목차 |

- | | |
|--------------------------------------|--|
| 1. 문제제기 | 1) 한국의 창세 신화 마고할미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
| 2.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여성 정체성의 변화 | 2) 일본의 창세 신화 아마테라스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
| 3. 권력구조의 재배치에 따른 여성
정체성 | 3) 중국의 창세 신화 여와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
| 4. 동아시아 여성 창조신들의 권력
재배치와 젠더 수행성 | 5. 결론 |

| 초록 |

과거에는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특징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런 구분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분류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문화 전반에서는 벌써 젠더 다양성이 표현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를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고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행위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젠더는 단순히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 행동, 옷차림 등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창의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현재에 사는 우리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영남대학교 kkmi0410@naver.com

반면,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정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세대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담긴 신화를 통해 젠더 인식을 돕고자 한다. 그 중 동아시아 창조신화 속 여성 신들의 권력과 수행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젠더 인식과 여성 정체성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화 중 창조여신 신화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젠더에 관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신들은 시대를 이어오면서 각 시대와 지역의 철학, 종교, 민간 신앙과 결합하거나 변형되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창조 여신은 여성의 모성적, 희생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연과 우주의 창조, 질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신화 속에서 수행되는 유동적 역할과 정체성을 규정해 가는 방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통 가치관 세대가 가지는 젠더 갈등의 간극을 줄이기에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젠더, 권력 재배치, 젠더 수행성, 창조여신,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

1. 문제제기

과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 구분되어 명명되던 성별은 이제 논바이너리(non-binary),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명칭과 구분의 다양성은 역할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른 삶의 방식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의 성별 옵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젠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주도 한 것으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일 것이다. 영화, 드라마, 음악, 소셜 미디어 등에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수용이 완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¹⁾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젠더 수용세대와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와의 갈등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젠더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수용 세대는 젠더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역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기반 한 성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를 어기는 젠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둘째, 사회적, 법적 권리의 확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들 수 있다. 수용 세대는 성소수자의 권리와 평등을 지지하며, 성별 정체성에 기반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에 따라 법적 권리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수용 세대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군 복무, 성별 정체성에 따른 법적 서류 변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권리의 확대를 요

1) 본고에서 칭하는 '전통 가치관 세대'란 남성과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지키며, 성별에 따른 이분법을 고수하고, 그에 따른 고유한 역할과 행동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세대를 의미한다. 이 세대는 가족 구조, 사회 규범 등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다.

구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이러한 권리 확대를 사회 질서의 붕괴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젠더 다양성 교육이나 성별 중립 화장실 도입과 같은 사회 제도 변화에 커다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가정과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세대 갈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적 수용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수용 세대는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인권과 평등의 문제로 간주한다. 이들은 사회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를 사회적 혼란이나 도덕적 퇴행으로 여긴다. 이들은 변화에 저항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 요소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 외 젠더 표현에 대한 언어 사용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에서 젠더 정체성과 성교육의 범위에 대한 갈등 등이 있다. 이런 갈등은 젠더 인식이 문화와 사회 전반에 변화의 시기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고, 젠더 인식이 사회 갈등이 될 만큼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갈등일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세대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가장 많이 담긴 신화를 통해 젠더 인식을 돕고자 한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은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에 있다. 그러므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화 중 여신 신화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여신신화를 젠더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젠더에 관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젠더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여성 신화를 통해 젠더 문제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파악하고, 전통 가치관 세대와 젠더 수용 세대의 간극을 줄이고자 한다.

또, 경제적 여건과 사회 질서의 변화가 여성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여성 창조 신화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해서 젠더 시각에서 분석한 여성 창조 신화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체성, 권력, 젠더 수행성에 관한 담론을 확장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신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창조신화 속 여성 신들의 권력과 수행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젠더 인식과 여성 정체성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버틀러(Butler)는 젠더를 고정된 정체성이나 내재된 특성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어떤 특성이나 특질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런 본질에 대한 기대가 그 속성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본질은,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특성에 대한 기대와 그런 기대가 만든 반복적 의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다. …… 젠더가 내적 본질이라고 믿는 관점이 사실상 허구임을 폭로한다. …… 사실 젠더는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천적이고 구성적인 것, 행위를 통해 수행되는 것, 무대 위의 연극적 행위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연출 되는 것이다(조현준, 2016: 14).

버틀러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하는 특성이나 역할은 사회적 합의와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젠더는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행되는 과정이다. 동아시아 창조여신인 마고할미와 아마테라스, 여와는 창조와 생명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여성적인 특성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이 여신들은 모성, 생산성, 지혜, 권력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여성

의 역할이 단순히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여신들의 이미지는 변화해 왔다. 불교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여신들의 위상도 변화된 것은 권력과 기록의 주체가 남성에게 있던 국가적, 시대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신화가 단순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속 여신들은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젠더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님을 시사할 수 있다.

창조여신을 통해 과거 여성의 역할을 단순히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신화 속 여신들의 다양한 모습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창세 여신의 역할과 행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창조여신들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여성성을 구성한다. 정체성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구성되고 유지되며, 반복적 수행은 여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성의 역할과 규범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신들 중 창조여신은 단순히 신화 속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그 여성성을 '수행'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창조, 수호, 희생, 모성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젠더 규범을 구현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아시아의 창조 신화는 주로 우주,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의 기원과 질서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신과 인간, 자연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

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신화 속 신은 종종 공동체의 보호자나 지도자로 등장해서 사회적 규범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신들은 시대로 이어져 오면서 각 시대와 지역의 철학, 종교, 민간 신앙과 결합하거나 변형되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의 창조여신은 여성의 모성적, 희생적 역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연과 우주의 창조, 질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는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이다. 신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화는 우리에게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어 온 유동적인 개념임을 보여줄 수 있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젠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더욱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 변화에 따른 여성 정체성의 변화

김윤성(2006: 107)은 신화는 다만 특정 집단에게 성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로서 거기에는 일정한 이데올로기가 담겨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화와 젠더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담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통념을 해부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과 사회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 여성들은 평등한 역할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 시기에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모성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냥을 담당하고, 여성은 식물과 열매 채집, 어린아이의 양육, 간단한 도구 제작, 가축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채집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이었다(Burnham 외, 1990). 실제로 채집이 사회의 주된 식량 공급원이었으므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제적 역할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존재로 여겨 종종 모계 중심의 사회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여성이 주술사, 샤먼, 치유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내에서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을 것임은 창세 신화 속 여성 신들의 이야기에서 능히 엿볼 수 있다.



(그림) 좌측부터 울산 신암리 여성 토우, 일본 조몬 여성 토우, 중국 우허량 토우²⁾

하지만 농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점차 가정 내의 역할로 제한되고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게 되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과 가축 사육과 같은 생계 수단이 주로 남성의 힘과 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남성은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일을

2) 토우는 흙으로 빚은 인형을 말한다. 석기 시대에 여성 모양의 토기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을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 숭배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유물이다(울산매일UTV, 2024).

담당하고,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담당하는 역할로 분리된다. 노동 분업으로 차츰 성별에 따른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정당화되고 재산 상속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강화되어 간다. 종교와 철학 체계는 가부장적 질서를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역할까지 가지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 사상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다.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중 장자상속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남성 본위 질서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거기에 교육에서 여성의 배제는 기록에서 남성의 독점을 가져왔다. 남성이 기록자로서 역사를 서술하면서 여성의 업적, 경험, 일상생활 등은 축소, 소외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주술사, 치유자, 종교 지도자 등의 역할을 맡았으나, 남성 중심의 기록은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착생활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중심이 남성에게 옮겨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축소되었다. 사회적 지위의 축소는 교육의 배제를 가져왔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남성 독점의 역사 기록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 구조에서 소외되었고 여성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3. 권력구조의 재배치에 따른 여성 정체성

버틀러는 “권력은 거부 될 수도, 철회될 수도 없다. 다만 재배치 될 뿐이다.”라고 했다. 권력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권력 구조의 재배치란 기존의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여성이 전

통적인 모성, 순종의 역할을 거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시도이다. 권력 구조의 재배치는 여성 정체성의 다양화를 가져온다.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여성을 가정과 돌봄의 영역에 국한했다면, 권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제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즉 여성성은 단지 모성적이고 돌보는 역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 정치적 발언, 성적 자기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여성은 가정 밖에서의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받는다. 물론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여성들은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하거나, 직물공장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가사 노동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직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들어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정권 운동, 노동권 운동, 그리고 교육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은 점차 자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재인식했다. 현재는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젠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고 가고 있다. 이제 권력의 재배치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수행되고 있다. 버틀러는 더 나아가 삶의 방식을 고정할 필요 없이 젠더 너머의 유동적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젠더와 젠더 의식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통 가치관 세대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한 여성 창조신들 권위의 재발견을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혀 갈 필요성이 더해진다.

4. 동아시아 여성 창조신들의 권력 재배치와 젠더 수행성

1) 한국의 창세 신화 마고할미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마고할미 신화에는 그녀가 산과 강을 만드는 과정,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 먼 옛날, 해도 달도 없이 어둡기만 한 세상에 마고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잠만 잤는데, 그녀가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하늘이 땅에 내려앉고 땅은 하늘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갈라졌다. 하늘이 떨어지는 바람에 별들도 질서를 잃고 우르르 떨어져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마고는 세상이 엉망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는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다. 마고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니 땅에 떨어진 하늘이 밀어 올려져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해와 달이 제자리로 찾아갔고, 다른 별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별들 사이에 튀어있던 구름과 비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지니까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은 갑자기 솟아오른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까마득히 높았던 산은 사람들의 무게에 눌러 쉬익 소리를 내며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땅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내려와서 보니 높이 솟았던 산의 정체가 바로 마고의 무릎이었다. 제주도에선 산을 오름이라고 하는데 마고가 무릎을 올려 세워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 있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마고의 발끝을 보러 달려갔다. 하지만 마고의 정강이에도 못 갔다.

마고가 드디어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오줌을 누 후에 마고는 아직도 잠이 덜 깨서 또 잠들고 말았다. 한라산을 머리에 베고 오른발은 동해로 뻗고 왼발은 서해로 뻗어 걸쳤다. 잠에서 깬 마고는 심심해서 두 발로 물장구를 쳤다. 출렁이던 물은 땅을 덮쳤고,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다. 마고는 다리 아래에 놓여있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손으로 땅을 긁으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곳은 산맥이 되었고 폭 파인 곳은 강이 되었다. 이리하여 마고의 국토가 만들어졌다. 이 국토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다.

한참 일을 한 마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고가 내신 한숨은 태풍이 되어 나무와 바위를 날려 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막한 만주 벌판이 생겼

다. 마고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을 몰랐다. 그때는 아직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고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다. 그녀가 커다란 산을 뽑아 먹으니 이가 아프고 맛이 없어서 도로 뱉어버렸다. 그녀가 버린 큰 산은 북쪽에 박혀 백두산이 되었고 작은 산은 남쪽에 떨어져 한라산이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 뒤로 마고의 얼굴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한다(나무위키, 2024).

마고할미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틀에 가두어지지 않은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그녀는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지배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고할미가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고할미 신화에서 마고할미가 산과 강, 들을 창조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마고할미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단순히 남성 신의 보조자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마고할미 신화의 이러한 묘사는 전통적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드러낸다. 마고할미는 자연과 인간의 창조자이자 대지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주체적 힘을 가진 존재다. 그녀의 행위는 남성 중심의 창조 신화와 대조되며 여성이 주도적으로 세상과 자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

“마고가 드디어 오줌을 누니 오줌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을 보면 마고할미의 신체적 행위가 우주를 창조하는 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우주 창조와 연결시켜 여성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신인 마고할미가 여성성을 넘어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창조함을 보여준다. 그녀의 신체는 단순히 거대함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창조적 힘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마고할미의 무릎이 산이 되고, 그녀의 오줌이 강과 바다가 되는 등의 행위는 세상의 구성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을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힘을 상징한다. 또, 마고할미

가 손으로 땅을 굽어 산맥을 만들고, 강을 형성하는 모습은 그녀가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신도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마고할미의 주도적인 행위는 여성성이 단순한 생명 잉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와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위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권력 관계를 전복하고, 여성의 권위와 영향력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권력의 재배치는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고할미가 보이는 주체적인 힘과 창조성은 여성에 대한 고정된 역할이나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도 주도적으로 세상을 형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용성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사회가 원하는 요구에 따라 그녀의 역할이 존재한다. 고대 사회에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보호를 기원하는 시기에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인 문제나 상황에서 창조자이자 지배자다. 여성에게 지어진 전통적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단순히 여성이 남성의 지위를 가지고 힘을 위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도 아닌 마고할미 자신이 주체자이고 권력자인 것이다.

2) 일본의 창세 신화 아마테라스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을 만든 것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였다. 두 신은 결혼해 바람의 신, 곡식의 신, 강의 신, 항구의 신, 산의 신 등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마

지막으로 낳은 자식이 불의 신이었다. 그런데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다가 큰 화상을 입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자나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자나미는 저승에 와서 흥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저승에 온 것을 후회하며 죽을 힘을 다해 저승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승으로 돌아온 이자나미는 바다로 뛰어 들어 목욕을 했다. 몸에 저승의 냄새가 배어 있어 그 때를 벗기려고 말이다. 그런데 몸을 씻는 동안 여러 신이 태어났다. 왼쪽 눈을 씻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생겨났고,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신 츠크요미가 나왔다. 또한 코를 씻고 나니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났다. 이자나미는 자식들의 탄생을 기뻐하며 먼저 아마테라스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하늘을 주마. 이제부터는 하늘을 다스려라.” 이자나미는 아마테라스에게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여신으로, 일본의 최고신이다. 이자나미는 달의 신 츠크요미에게 말했다. “너에게는 밤의 세계를 주마. 이제부터는 밤을 다스려라.” 이자나미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에게도 임무를 맡겼다. “너에게는 바다를 주마. 이제부터는 바다를 다스려라.” 아마테라스와 츠크요미는 이자나미의 명을 받들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마테라스는 하늘을, 츠크요미는 밤을 다스렸다. 그러나 스사노오는 이자나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다로 가지 않고 온종일 울기만 하는 것이다. 이자나미가 보다 못해 스사노오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울기만 하느냐?” 스사노오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에 가고 싶어요.” “뭐, 뭐라고? 못난 놈, 네 멋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 버려!” 이자나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스사노오를 쫓아 버렸다. 이때부터 폭풍의 신은 소리 내어 울며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스사노오는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으로 가기 전에 누나인 아마테라스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하늘이 심하게 흔들리자 아마테라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스사노오가 하늘을 뺏으러 오는구나. 그 녀석한테 내 나라를 넘겨줄 수야 없지.’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사노오에게 맞서려고 활과 화살을 든 채 마중을 나갔다. “네가 어떤 일이니?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아마테라스가 묻자 스사노오가 대답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누나를 만나보고 가려고요.” “네 말을 어떻게 믿지?”

“나 참, 대답하네요. 내 속을 뒤집어 보여 줄 수도 없고… 누나,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내기를 할까요? 아이를 낳아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는 그 자리에서 아이 낳기 대결을 펼쳤다. 먼저 아마테라스가 스사노오의 칼을 받아 깨끗한 물로 행구고 세 동강을 내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입에 넣어 씹은 뒤 뱉었다. 그러자 여신 셋이 태어났다. 이어서 스사노오가 아마테라스의 머리 장식인 구슬을 받아 깨끗한 물로 씻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에 넣어 씹은 뒤 내뱉었는데 남신 다섯이 태어났다. 스사노오가 웃으며 말했다. “어때요? 내 칼에서 순수한 여신들이 태어났으니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응, 그래. 네 진심을 알겠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를 받아들였고, 하늘에서 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스사노오가 머물면서 하늘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스사노오가 성격이 난폭한 데다 장난이 심해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아마테라스가 갈아 놓은 눈을 망가뜨리고, 그 눈에 물을 대는 개천도 매워 버렸다. 또 어떤 날은 아마테라스가 제물을 먹는 신전에 똥을 뿌려놓았다. 하늘의 신들은 이것을 보고 스사노오를 원망했지만 아마테라스는 오히려 스사노오를 감싸 주었다. 아마테라스가 허물을 덮어줘도 스사노오는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끝내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어느 날, 아마테라스의 명으로 어느 여신이 옷을 짜고 있었다. 이때 스사노오는 여신의 집 지붕으로 몰래 올라가 천장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가죽을 벗긴 말을 떨어뜨린 것이다. 여신이 너무 놀라 앞으로 넘어졌다가 그만 베틀의 북에 찢려 죽어 버렸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가 여신을 죽게 만들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와 함께 동생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겨,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바위굴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었다.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몸을 숨기자, 세상은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낮은 사라지고 밤만 계속되었다. 그러자 세상은 혼란에 빠져 온갖 재앙이 일어났다. 하늘의 신들은 8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아마테라스님을 바위굴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오모히카네 신이 “아마테라스님을 바위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밖이 시끌시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제 발로 걸어 나오지요.” 오모히카네 신은 계락을 짰다. 먼저 저승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인 나가니키도리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강에서 돌을 주워 거울을 만들었으며, 구슬을 깐 장식물을 500개쯤 만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오모히카네 신은 하늘의 신들을 거느리고 바위굴로 몰려갔다. 오모히카네 신은 바위굴 앞에 있는 신목(비쭈기나무)의 윗가지에 구슬 장식물을, 아랫가지에 거울을 걸어 놓았다. 그다음엔 바위굴 옆에 힘센 남자 신인

아메노타지카라오를 숨겼으며, 바위굴 앞에서 무용의 여신인 아메노우즈메에게 옷을 반쯤 벗고 뒤집어놓은 통 위에서 춤을 추게 했다. 물론 닭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울게 했다. 하늘의 신들은 아메노우즈메가 야한 춤을 추자 하늘이 떠나갈 만큼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바위굴 속에 있던 아마테라스는 밖이 시끌시끌하자 고개를 가우뚱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지? 무슨 일이 생겼나? 아마테라스는 밖이 궁금하여 바위굴의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바위굴 옆에 숨어 있던 힘센 아메노타지카라오가 아마테라스의 손을 낚아챘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는 바위굴 밖으로 끌려 나왔고 세상은 다시 밝아졌다.

아메노타지카라오는 아마테라스가 다시 바위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바위굴 입구에 밧줄을 둘러 막았다(최박광, 2021).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으로서의 대지모신(大地母神)이다. 후에 황실의 신으로써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무력, 군사력으로 상징되어온 남성적인 힘을 겸비하게 되었다. 많은 남성 신을 물리치고 신들의 최고지위에 군림하는 가장 중요한 신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자나기의 몸에서 탄생한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자 하늘의 통치자로 임명된다. 이자나기가 그녀에게 “하늘을 다스리라”며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은, 아마테라스가 단순히 남성 신들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적인 권력자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은 고대 사회에서 남성성과 연결되기도 하고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최고의 자리다. 하늘은 높고 넓으며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늘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곧 우주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근대화 이전의 옛 일본에서 아마테라스를 ‘외모가 뛰어난 미남’으로 묘사했다는 기록이나 유물들이 있다.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가 아내 이자나미를 만나기 위해 황천에 다녀온 후,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씻을 때 왼쪽 눈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해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신이다. 그러므로 아마테라스는 그 출

생 단계에서부터 여성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신이다. 아마테라스는 신화 속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여성성을 탈각하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성적인 복장을 하고 다른 신을 대하며, 여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없이 아이를 얻는다. 심지어는 근원적인 출생의 단계에서조차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만 태어난다. 여성적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꾀한다. 그렇기에 손자인 니니기를 땅에 내려 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며 신화 내에서 여신이자 최고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박광은, 2015).

신화 속 인물은 단순히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통치자로서 생명력, 권위 등 다양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비록 직접적인 출산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신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신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허나 아마테라스가 남성적인 복장을 한다거나 아이를 직접 낳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여성성을 부정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신화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

여성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된다. 아마테라스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 존재이다. 태양의 여신으로서 아마테라스는 통치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녀가 하늘을 다스릴 때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며 자연의 질서가 유지된다. 이는 아마테라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 신으로서의 주체적 힘과 통치력을 강조한다. 이 신화에서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갈등은 젠더 권력의 관계를 재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스사노오가 이자나키에게서 받은 임무를 거부하고 하늘에

있는 아마테라스를 찾아간다. 하늘에서 보여 준 스사노오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은 여성 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모습이라 여겨진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권위를 흔드는 방식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테라스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한다. 활과 화살을 들고 스사노오를 마중 나가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고, 자신의 힘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신임을 보여준다.

아마테라스는 여성의 특성을 지닌 신이지만, 남성 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젠더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행성의 개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오의 도전에 과감하게 맞서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하지만 스사노오가 여신을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바위굴에 숨어버리는 장면은 여성 권력이 외부적 세계의 힘과 규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테라스가 바위굴에 숨자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고 혼란에 빠진다. 결국, 그녀의 존재와 힘이 세상의 조화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드러냄으로써 여성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신들이 그녀를 바위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은 젠더 권력의 재구성과 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혜로운 신 오모히카네는 아마테라스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신들과 함께 실행한다. 이는 권력 회복이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혜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상의 조화와 번영은 갈등과 조율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테라스 신화는 여성의 힘이 생명 창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통치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주체성이 다양한 도전과 대처를 통해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창세 신화 여와를 통해 본 젠더 권력과 수행성

창세후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땅에는 산과 강과 풀과 심지어 새와 짐승과 곤충과 물고기까지 있었지만 인간만은 없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표현하든 조금은 황량하고 외로웠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와(Nuwa)라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여신이 나타났다. 하루에 70번 정도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날, 위대한 여신 여와(Nuwa)가 광활한 황야를 걷고 있었는데,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무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무엇을 추가해야할까? 한참을 걸다가 조금 피곤해져서 작은 연못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맑은 물은 그녀의 얼굴과 모습을 비쳤고, 물속의 그림자도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갑자기 “세상에는 온갖 생물이 있지만 나 같은 생물은 없어, 나 같은 생물을 만들어 세상에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노란 진흙 덩어리를 파내고 물과 섞은 다음 손으로 반죽하여 작은 인형 같은 것이 될 때까지 만들었다.

여와는 그 작은 것을 땅에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점토 녀석은 땅에 닿자마자 살아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작은 점토 녀석은 기쁨에 넘쳐 뛰고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환호했다. 여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영리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바라보며 “엄마”라는 외침을 들으며 기쁨과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 인간의 몸은 작지만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습과 행동이 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 다니는 짐승과는 다르다.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는 우주를 다스리는 비상한 정신이 있는 것 같았다. 여와는 자신의 작업에 매우 만족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노란 점토로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귀여운 작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 작은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서 뛰어다니고 환호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위안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별과 달이 희미한 빛을 발할 때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밤이 늦어서 그냥 절벽에 머리를 대고 잠시 잠을 잤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서둘러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지구를 채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지구는 너무 크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했고, 지쳤다. 마침내 그녀는 인간을 창조하는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여와는 절벽에서 시든 덩굴을 뽑아 수렁에 댄어서 두껍고 노란 진흙이 되도록 휘저었고, 진흙이 튀는 곳에 작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엄마”의 함성이

올려 퍼졌다. 이 방법을 사용하니 작업이 정말 간단하고 번거롭지 않았다. 덩굴을 휘두르자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내 땅은 사람의 흔적으로 뒤덮였다.

지구상에는 인간이 있지만 여와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한 그룹이 죽으면 또 다른 그룹이 생겨날까?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와는 마침내 작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그들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렇게 인간은 대대로 이어져 왔고, 낱알이 증가하고 있다.

여와가 창조한 인간과 동식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태고시절 갑자기 자연의 균형이 깨지는 큰 천지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그리고 불길이 맹렬히 치솟고 거센 물살이 덮쳐오는 등 하늘과 땅 전체가 변동을 일으킨 것 이었다. 험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나운 날짐승들이 노약자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이러한 불행을 겪는 것을 자비로운 여신 여와는 내버려두지 않았다. 여와는 우선 불행의 원인인 파괴된 하늘과 땅을 위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와는 오색빛깔 나는 넓은 돌을 잘 다듬었고 그것으로 하늘의 뚫린 구멍을 기웠다. 다음으로는 무너져버린 땅의 네 기둥이 문제였다. 여와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네 발을 잘랐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방 땅 끝에 세워 하늘을 떠받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니 무너졌던 하늘과 꺼져 버렸던 땅이 본래의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 여와의 천지 보수공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사방에서는 아직도 맹수들이 날뛰고 있었다. 여와는 맹수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검은 이무기를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맹수들이 점차 진정되기 했다.

또 여와는 갈대 잎을 태운재로 넘쳐나는 물을 막았다. 이제야 천지의 재앙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서늘한 가을, 추운겨울의 사계절이 전처럼 순환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안락하고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짐승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경지에 이르렀다. 여신 여와의 노력에 의해 마침내 인간은 평화로운 시절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모든 과업을 이룩한 뒤 여와는 잠잠해진 인간 세상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이 손볼 것이 없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응룡(應龍)이라는 날개 돋친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구름 속을 지나 하늘나라로 초연히 떠나갔다(바이두 백과사전, 2024).

중국 여신 창조 신화의 여와가 혼자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 태초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 존재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세상에 인간이 없어 황량하고 외로움을 느낀 여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후, 자신과 비슷한 생명체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여와는 진흙을 사용해 사람을 직접 창조한다. 여와가 남성 신의 도움이나 명령 없이 스스로 생명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여와의 창조 행위는 전통적으로 생명탄생을 돌보는 여성의 역할을 넘어선다. 그녀는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와 우주를 다스리고 유지하는 권력을 행사자이다. 이는 여와가 단순한 생명 창조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녀의 능동적인 역할은 여성도 우주의 창조와 유지에 중요한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권력이 재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와는 이러한 고정된 성별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여성이 보호와 보살핌을 넘어서 힘과 지혜로써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여와의 신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인간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여와는 직접 행동에 나선다. 오색 빛깔의 돌로 하늘의 구멍을 메우고, 거대한 거북의 다리로 땅을 지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여와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수호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녀의 행위와 결정은 전통적인 여성성의 범주를 벗어나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젠더 수행성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와가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노란 진흙을 직접 반죽하고 형체를 만드는 장면은 전통적인 여성의 돌봄이나 양육의 역할을 넘어 창조자이다. 인간을 번성시키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생식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여와가 생명의 탄생과 지속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젠더 수행성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와는 창조신인 동시에 세상의 혼란과 자연의 재앙을 해결하는 수호자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한다. 오색의 돌을 모아 하늘의 구멍을 메우고, 거북이의 다리로 땅을 지탱하며, 맹수를 물리쳐 인간을 보호하는 등 여와의 행위는 여성 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임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여와의 역할은 젠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에서 권력과 통치의 중심은 대부분 남성이 자리이다. 하지만 여와의 신화에서는 여성이 창조와 수호의 주체로 묘사된다. 그녀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 관계를 재배치하고, 여성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새롭게 구성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처럼 동아시아 신화에는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와 같은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성 창조신이 있다. 이 세 창조 여신들은 각각 한국, 일본,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여성 창조신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성을 보여준다.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여성 창조신으로 등장하지만, 여성의 주체성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 신들의 보조자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고 통치하는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세 창조 여신의 신화를 바탕으로 젠더를 논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젠더 규범

을 뒤집고, 여성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는 새로운 젠더 권력의 구도를 제시한다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세 여신들의 창조 행위는 젠더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행동과 정체성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르트(Barthes, 1995)는 신화란 사회적 통념이나 가치, 신념 또는 이에 올로지처럼 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신화를 이데올로기라 했을 때, 가부장적 통념은 이데올로기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차옥송 외, 2010). 여성 신화도 가부장적 틀 안에서 가두려는 의도는 동.서양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져 오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 체계와 여성에게 부여되는 전통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 통념과 권력 구조가 반영된 신화에서 여성의 힘과 주체성 강조를 분석해 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젠더 평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세 창조 여신의 신화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서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이 신화를 통해 새로운 젠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다. 세 여신의 신화는 전통적인 문맥 안에 여성의 주체적 역할과 힘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 문화적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젠더 수용 세대는 기존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의 독립성과 힘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수 있고, 전통 가치관 세대는 전통적 젠더 규범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도 젠더 인식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 모두 남성신들 없이도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의 힘과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서사가 전통적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고의 잦은 노출은 전통적 해석 세대와 젠더 수용와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좁혀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 여신의 젠더적 해석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전통 신화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마고할미와 여와의 신화에서 여성의 창조적 힘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역할이 자연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틀 안에 묶어 두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신화를 통해 여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적인 젠더 수용을 완전히 뒷받침해주지 않아 기존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화의 서사에서는 젠더 정체성이나 사회적 불평등 등 복잡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젠더 수용 세대가 제기하는 모든 젠더 관련 이슈를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전통 신화 속의 여성은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이 상징이 곧 현실에서 여성의 지위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 여신의 서사를 통해 실제 사회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화 자체가 현대의 복잡한 젠더 이슈를 모두 포괄하거나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신화들을 교육 및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젠더 인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신화 속에 내재된 여성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세대 간의 젠더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젠더 수용 세대의 관점에서 신화의 젠더적 분석과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면 전통 가치관 세대도 변화된 인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신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대한 서사체로, 그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종종 당대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창조신화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 창조신들인 마고할미, 아마테라스, 여와는 기존의 가부장적 통념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일부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주로 생명 탄생, 육아, 보호 등의 돌봄 영역에 국한된 여성의 역할은 창조 여신 신화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과 강을 창조하고 국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자연의 생명력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어머니로서의 모성적 요소와도 결합되어 있으면서 젠더로서 여성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마테라스의 통치권이 아버지 신인 이자나기에 의해 부여된다는 점은 신화 속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조차 아마테라스는 하늘의 통치자가 되고 투쟁에서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낸다. 마고할미도 그러하지만 여와는 남성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위기에 직접 나서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강력한 수호자의 모습을 보인다. 여성도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 돌봄과 수호의 이미지를 여성이 가지는 모성 본능에 국한해 해석할 수도 있다. 여와의 창조 행위가 여성의 생명 창조와 보호의 역할로만 상징해 버릴 수도 있다. 또 여와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그들이 번식하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부분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생명 잉태와 번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의 권력이 생명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창조신화로 젠더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간극을 줄이는 게 간단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성창조신화를 통해 여자, 남자 이분법적 구분짓기를 넘어서 여성성도 남성성도 아닌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로인해 고정관념을 깨고 젠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신화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텍스트이다. 태초의 여성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신화 속 여성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본다면 그 간극을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여성 신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현대적 가치와 결합하여 젠더 서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여성 신화를 다양하게 해석을 분석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활용한 재해석은 젠더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신화의 환상성 서사와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현재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일 것이다. 이런 미디어들과 통합해 자연스럽게 여성 신화를 젠더적으로 해석하고 공유한다면 전통 가치와 젠더 세대와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화는 해석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미디어와 SNS의 발달은 상업적 흥미를 위해 신화의 본래 맥락과 의미가 왜곡되거나 자극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편향된 데이터를 활용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거나 정형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 미디어로 인해 잘못된 젠더 고정관념이 생긴 사례도 종종 발생했고, 그로 잘못된 인지된 젠더 고정관념이 생긴 사례도 다소 있었다. 여성 신화는 각 문화권

의 독특한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 젠더 담론에 활용할 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신화를 현대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디어가 편향된 시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미디어 전달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성 신화는 여전히 현대의 젠더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원이다.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신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의 권력이 생명 탄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창조와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젠더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수용하는 사회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김윤성. 2006. “젠더의 렌즈로 읽기- 가부장적 통념과 여성적 힘 저널정보.” 『종교연구』 45: 107-134.
-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2000. 『신화와 의미』. 임옥희(역). 서울: 이글레오.
- 바르트, 롤랑. 1995. 『신화론』. 정현(역). 서울: 현대미학사.
- 박광은. 2015. “사회적 권력 관계와 여신의 자리-고조선 건국신화와 일본 왕권신화를 중심으로.” 『동방문화비교연구』 5: 41-76.
- 버틀러, 주디스. 2022. 『젠더트러블 페미니즘과 전체성의 전복』. 조현준(역). 서울: 문학동네.
- 변햄, 린다, 미리엄 루이. 1990.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강이수(역). 서울: 태암.
- 이창수. 2005. “아마테라스는 여신인가?: 《고사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9(2): 53-78.
- 조현준. 2016.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차옥승 외. 2010. 『동아시아 여신신화와 여성 정체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박광(역). 2021. 『일본서기/고사기』. 서울: 동서문화사.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나무위키. 2024. “한국 신화.” <https://namu.wiki/w/> [검색일: 2024.9.9.]
- 바이두 백과 사전. 2024. “고대 중국 신화와 전설, 누와(Nuwa)가 인간을 창조하다.” <https://baike.baidu.com/item/> [검색일: 2024.9.10.]
- 김진영. 2024. “신암, 선사 해양인류가 풍요를 기원한 해안.” <울산매일UTV>. 2023.9.6.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145> [검색일: 2024.9.10.]

Abstract

Gender Power and Performativity through East Asian Creation Goddess Myths

Yeo, Kyung-Mi
(Yeungnam University)

Judith Butler views gender as something that is created through repetitive actions perform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as a fixed identity or inherent characteristic. To narrow the conflict between the generation with traditional values and the generation that accepts gender d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id gender perception through myths that contain the most traditional values. It also analyzes the power and performance of female deities in East Asian creation myth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gender perception and female identity in modern society and explores the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power structure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enerations lies in the issues of values and ident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perception of gender has been historically shaped and changed. Among myths, the creation goddess myth is an important medium that helps with this understanding and can be used to provide various values and perspectives on gender. In particular, the creation goddesses of East Asia show that they are independent being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rder, and harmony of nature and the universe while harmonizing with the maternal and sacrificial roles of women. When mythology serves as a patriarchal ideology, analyzing and studying how femininity is performed through actions carried out in myths, and defining roles and identities through those

actions, can be a meaningful study in narrowing the gender conflict gap between generations with traditional values.

Key words: Gender, Gender Power Reallocation, Gender Performativity, Creation Goddess, Mago Halmi, Amaterasu, Nuwa(Nüwa)

- 투 고 일 : 2024년 9월 18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25일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20-30대 남성의 다양성과 그 함의

박정오*

| 목차 |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 1) 젠더와 독서 행위
 - 2) 20-30대 남성의 다양성
3. 이론적 자원
 - 1) 독서 행위
 - 2) 남성성
 - 3) 마이너리티 정체성
4.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방법
 - 3) 분석틀
5. 연구 결과
 - 1) 유형 분석
 - 2) 유형화의 함의
6. 결론

| 초록 |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 이외에 다른 남성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진행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와 남성성이다. 독서 행위는 면접 참가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책을 읽는지 살펴봄에 분석했고, 남성성은 젠더 의제에 대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했는데, 이때 젠더 의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 부산대학교 hillitoot@naver.com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20-30대 남성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독서 행위의 특성은 면접 참가자들이 젠더 의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와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면접 참가자들을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으로 유형화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이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특정 분야의 생계 활동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젠더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남성성, 독서 행위, 20-30대 남성, 다양성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 이외에 다른 남성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를 분석하고자 진행했다. 20대 남성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로 분류되었지만(진시원, 2022: 39), 2018년 문재인 정부에 강한 지지를 보내던 20대 남성 집단에서 국정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후 발간된 정책 보고서에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의 여성친화적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으며,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해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 문제 등에 적대적이라 분석하고 있다(최성용, 2019:

93-94).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20대 남성에게로 집중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쪽은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여러 특성을 지적하는 연구이다. 20대 남성은 기회가 점점 축소되는 저성장의 국면에서 공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쟁이 아닌 권력의 팔 비틀기를 통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분석(천관울·정한울, 2019: 79), 청년 남성은 학벌·성별 임금 격차를 공정으로 인식하며, 부자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 등이다(KBS·한국리서치, 2021). 또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로지 무언가에 반대하는 집단이라거나(최성용, 2019: 111), 이들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남성 집단 내에서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분석(허성학, 2020: 268) 등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은 20대 남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20-30대 남성은 전통적 남성성과 거리가 멀고 ‘여성적’ 역할과 기질이라 인식되는 가사분담, 요리, 정서적 관계 형성 등에서 40-50대 남성에 비해 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마경희 외, 2018: 62), 다른 세대 남성과 비교했을 때 20대 남성의 성평등의식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젠더 의식 차이는 20대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종숙, 2020: 208). 또한 청년 남성의 젠더 관계 인식이 다양하며 일부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추지현, 2021: 188).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이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과 맥락, 관련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보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건 필요한 행위이지만, ‘한국의 20대 남자’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거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20대

남성이 문제시되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공고화되면서 반페미니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집단의 특성과 정체성이 20대 남성 전체를 대표하고 특정한 이미지로 공고화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2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는 현존하는 젠더 갈등의 논점을 흐리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남성’도 존재한다는 논의는 결국 여성혐오 범죄를 일부 남성의 일탈로 인식하는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절충하여,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모습과는 다른 20대 남성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고,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던 2018년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30대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 외 다양한 모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매체의 종류가 많아지고 문화 소비 방식이 다양해진 최근에는, 문화 취향과 문화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체성도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고명지, 2020; 김주원·오세이·오경아, 2022).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는지,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가 이들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20-30대 남성이 어떤 문화 취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게임, 운동, 스포츠 등을 분석하는 게 유용하겠지만, 이는 현재 20-30대 남성의 특성을 설명하며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이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뿐, 이들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이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이미 활발하게 향유

하고 있는 문화 취향을 분석하기보다, 이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화 취향 혹은 문화 소비 행위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에 주목했다. 성인 독서율이 감소하고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독서 행위는 더 이상 보편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독서 인구 중 20-3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통계청, 2021), 독서 행위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천경록, 2014; 김경민, 2019; 김미혜, 2022)는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과 대조적이기에, 독서 행위 분석을 통해 새로운 20-30대 남성의 모습을 제시하려 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이 독서 행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목했다기보다, 20-30대 남성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독서 행위를 선택했다.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는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 신념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교류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이며(최숙기, 2018: 169-170), 개인은 이러한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천경록, 2014: 9). 또한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며(김경민, 2019: 102), 다문화 감수성, 비판적 문식성, 공감 능력 등과 연관이 있다(김미혜, 2022: 22). 다만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독서 행위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 개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한 목적으로 읽는다. 또한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의 관점에서 개인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 및 가치관에 맞는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즉 독서 행위와 개인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 행위 전반이 아닌,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독서의 기능 및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며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때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남성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20-30대 남성 내에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지배적인 이유를 분석하며 유형화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책 읽는 20-3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가? 이를 통해 20-30대의 다양한 남성성을 살펴볼 수 있는가? 다양한 남성성은 각각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발현되는가?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가?

2. 선행연구

1) 젠더와 독서 행위

최숙기(2018)는 독서를 젠더화된 행위로 바라보며 문식성 행위, 즉 텍스트 읽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여자로 살

아가는 과정과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소설 『82년생 김지영』 읽기를 통해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대한 반응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남성 독자들은 부정적 읽기 태도를 보였던 반면 여성 독자들은 동일한 책에 대해 긍정적 읽기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일부 남성 독자는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를 통해 페미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성 중심 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며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다(최숙기, 2018: 193-194). 한편 김세화·최숙기(2020)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분석, 요약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독자가 페미니즘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 남성 독자 집단은 페미니즘 텍스트에 대한 저항 및 의혹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 독자 집단은 기존에 형성된 젠더 담론을 중심으로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한다(김세화·최숙기, 2020: 54-5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독자가 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자신의 젠더 인식과 관념을 기준으로 다르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며 젠더와 독서 행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젠더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젠더 내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페미니즘 텍스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독서 행위 전체를 아우르기보다 특정 장르의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성별 내 차이를 충분히 조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젠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닌 남성 내 차이에 주목하고, 페미니즘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독서 행위 전반에 대해 분석하며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려 한다.

2) 20-30대 남성의 다양성

본 연구는 책 읽는 20-30대 남성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20-30대 남성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경희 외(2018)는 한국 남성성의 유형을 전통적 남성성, 과도기 남성성, 비전통적 남성성으로 나누며 20-30대 남성은 비전통적 남성성, 과도기적 남성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엘리(2019)는 일부 20-30대 남성들이 근대 남성성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규범에 비판적이면서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이브리드 남성성을 수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지현(2021) 역시 청년 남성들의 젠더 관계 인식을 ‘평등 당위수용’, ‘보수’, ‘변혁 지향’, ‘같은 지향으로 유형화하며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일부 보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들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20-30대 남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고정되고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이들의 특성을 도출하여 분류화 및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남성이 존재한다는 논의는 젠더 갈등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책 읽는 20-30대 남성을 페미니즘 이외에도 능력주의, 다양성 등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남성의 모습을 탐색한다. 또한 젠더 갈등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자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지 분석하려 한다.

3. 이론적 자원

1) 독서 행위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독자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때 독자는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한위성, 2017: 279-280). 이러한 접근은 저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담론과 구별되며 독자의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맞춘 독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 개념과 연결되는데(Cahill, 1996; 성수진, 2022: 287에서 재인용), 이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 신념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교류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며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숙기, 2018: 169-170). 본 연구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독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개인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한 특정 장르의 텍스트가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 독자 내에서도 다양한 응답을 보여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최숙기, 2018; 김세화·최숙기, 2020), 독서 장르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즉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독서 목적과 독서 장르에 주목한다.

한편 독자는 독서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천경록, 2014: 9),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며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김경민, 2019: 102). 독서는 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독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 비판적 문식성,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고(김미혜, 2022: 22), 상상력의 해방이 문식력(literacy) 교육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정

치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개인적 상상력에서 공공 상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김수아·이예슬, 2017: 99). 이를 통해 독서 행위는 공감 능력, 감수성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서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 보려 한다.

2) 남성성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남성성은 여성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대립물로서 서로를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안상수 외, 2014: 43). 코넬(Connell)은 남성성을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관계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데, ‘헤게모니적(hegemonic) 남성성’은 해당 사회의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을 의미하며 ‘종속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상징적으로 추방된 이들을,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에서 이득을 얻으며 가부장적 배당금을 받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스스로 권위를 산출하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한다(Connell, 2013: 123-130).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성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있긴 하지만,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3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은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들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규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넬이 제시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

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남성성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진행하려 했다. 즉 20-30대 남성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살펴보고자 젠더 의제에 관한 입장을 조사하려 했다. 이때 젠더 의제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 항목 위주로 선택했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을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닌 다양성과 혼종성을 가진 집단으로 접근하기 위해 남성을 나누고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유정·김민지(2022)는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이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있다. 마경희 외(2018)는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동의 정도’, ‘요리·가사 역량’, ‘가사분담 정도’, ‘정서적 관계 역량’을 기준으로 남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지현(2021) 역시 청년 남성의 젠더 관계 인식을 파악하고자 ‘성역할규범’, ‘현행 젠더 관계평가’, ‘변화에 대한 태도(정책 지향)’를 살펴보고 면접 참가자를 유형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넬의 논의와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성 구성요소를 ‘젠더 문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젠더 문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강한 남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성 연구는 주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 이외의 다양한 남성성 유형을 살펴보는 데 있기에,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3) 마이너리티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하여 이들의 정치경제학적 토대를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통해 살펴본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공정과 경쟁을 중요시하고, 각자 느끼는 불합리함을 사회적 약자, 소수자 정체성으로 표출하는 20대 남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천관율·정한울, 2019: 79; 허성학, 2020: 268).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다수라기보다 25.9%에 해당하지만(천관율·정한울, 2019: 65), 이후 진행된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를 살펴보면, 20-30대 남성 중 5.5%만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으며(경향신문, 2022), 청년 남성은 학벌·성별 임금 격차를 공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KBS·한국리서치, 2021). 20-30대 남성의 이러한 인식은 이념 양극화와 정치적 행위로도 나타났는데, 2021년 진행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대 남성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KBS·MBC·SBS, 2021; KBS·MBC·SBS, 2022), 이들의 보수적 성향과 반페미니즘 정서는 공고화되고 있으며(진시원, 2022: 40) 일부 집단의 경향이라 보기 어렵다. 즉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와 가까운 이들이 여전히 다수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20-30대 남성을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의 핵심은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남성 위기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기득권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한국 남성의 특성이기도 하지만(엄기호, 2017: 182),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30대 남성 내에서 주로 관찰된다(천관율·정한울, 2019; 김원정 외, 2021; 천정환, 2016). 이들은 기성세대에 의한 착취와 여성에 의한 착취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인식하는데(천관율·정한울, 2019: 130),

징병제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래 여성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할당제 등 여성 우대 정책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김원정 외, 2021: 40). 이는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문화는 이들의 박탈감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능력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천정환, 2016: 369-370). 즉 20-30대 남성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든 또래 여성과의 관계에서든 공정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이들은 20-30대 남성에게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남성성의 위기 속에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로 발현된다는 의미다(김수아·이예슬, 2017: 69). 또한 성인 남성은 굴욕 혹은 수치심을 느끼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폭력적인 방식의 대응 및 혐오가 만들어진다는 논의 역시(Chodorow, 2002: 135; 이나영, 2016: 160에서 재인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설명한다.

한편 20-30대 남성의 불안과 분노가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향하는지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왜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들이 기성세대에 의한 착취와 여성에 의한 착취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인식하는(천관울·정한울, 2019: 130) 그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20-30대 남성은 동년배 여성에 비해 고용율이 높고 실업률이 적게 나타난다(통계청, 2023). 다만 최근 20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과 실업률 흐름은 차이가 존재한다.

〈표 1〉 2003~2023년 20-30대 고용률 및 실업률(%)

성별	연령 계층별	2003년		2013년		2023년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남성	20-29세	63.6	8.9	55.8	9.0	58.4	6.6
	30-39세	92.1	3.1	90.2	3.2	88.9	2.5
여성	20-20세	57.4	6.4	57.8	6.8	63.4	5.2
	30-39세	52.4	2.8	55.5	2.5	68.0	2.8

출처: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수정.

전체적으로 20-30대 여성은 20년간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든 반면, 20-30대 남성은 고용률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나타난다. 즉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며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는 데는, 동년배 여성과의 경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해졌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축에 속하며, 남녀가 각각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근무 형태가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20-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20-30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 남성은 당시 동년배 여성과 비교했을 때 고용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현재의 20-30대 여성은 줄곧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취약성이 원인이 되어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고, 공정과 경쟁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20-30대 남성을 분석할 때 경제적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서가 공감 능력 및 감수성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

으로 20-3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 있기에, 이들의 독서 행위가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려 한다.

4.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하는 20-30대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독서의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을 선정하였다.

〈표 2〉 면접 참가자 분류

분류	이름 (가명)	연령대	학력	독서량 (한 달)	직업	연봉	주요 독서 분야 (현재)
A	동현	89년생 (30대)	대졸	3-4권	책방 대표	2500만원 내외	문학, 사회과학
B	상수	98년생 (20대)	대졸	1~20권	정책 연구원	2800만원 내외	자기계발, 실용서
C	현우	95년생 (20대)	대졸	3권	책방 직원 (팀장)	3000만원 내외	사회과학
D	준식	94년생 (20대)	대졸	2권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	3000만원 내외	마케팅
E	현규	91년생 (30대)	고졸	1권	(전) 디자이너 *취업 준비 중	2500만원 내외 (과거)	사회과학, 마케팅
F	대훈	93년생 (30대)	대졸	2권	정신건강사회 복지사	3500만원 내외	심리, 인간관계, 주식
G	태호	93년생 (30대)	대졸	2권	무직	600-900만원 (무직)	심리, 자기계발
H	강훈	95년생 (20대)	대졸	4-8권	도서관 사서	2700만원 내외	문학

분류	이름 (가명)	연령대	학력	독서량 (한 달)	직업	연봉	주요 독서 분야 (현재)
I	명주	95년생 (20대)	대졸	4-8권	(전) 선박 기자재 업무 *취업 준비 중	3300만원 내외 (과거)	주식
J	준호	94년생 (30대)	석사	3-4권	생산직 *이직 준비 중	3800만원 내외	심리학, 사회과학

본 연구의 면접 참가자는 총 10명이며, 연령대와 선호 장르 등을 범주로 모집했다.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은 엘리트층 혹은 고소득층에서 드러난다는 연구도 있고(KBS · 한국리서치, 2021)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는데(한귀영,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남성이 계층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아닌 독서 행위를 통해 20-3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했으며, 1회당 평균 2시간씩 소요되었다. 사전 동의를 구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문서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별로 각 1회씩 진행되었다. 면접 참가자는 20대와 30대를 각각 5명씩 나누어 모집했다. 이때 <2021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1인당 연평균 독서 권수가 8.9권, 30대 남성의 평균 독서 권수가 9.8권이라는 점을 참고해, 면접 참가자는 평균 독서 권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들을 선정했다(통계청, 2021). 기준은 월평균 독서량 1권 이상으로 설정했다. 독서 장르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을 모집하려 했는데, 5명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 참가자들의 주 독서 장르는 자기계발, 마케팅, 주식 등을 포함한 '실용 서적'과, 사회과학, 문학 등을 포함한 '인문 서적'으로 나누어졌다. 이를 참고하여 나머지 5명의 인터뷰는 '실용 서적'과 '인문 서적'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서 장르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면접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적합한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했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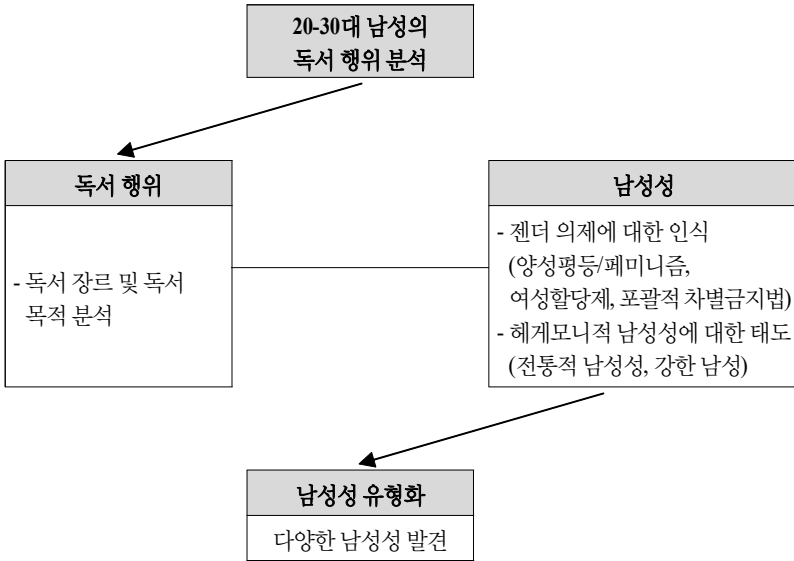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 면접’을 선택했다.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끌어내기 위해 심층 면접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 1:1로 진행했다. 또한 큰 틀과 구조를 정해놓고 면접 대상자 스스로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반구조화 방법을 활용했다. 사전 질문지가 있었지만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가하여 면접 대상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다.

자료 수집 이후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활용했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자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Charmaz, 2013: 26).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코딩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복잡한 정보를 축소 시키며 패턴을 찾고 유형화를 하는 것이다(박미혜, 2023: 166).

근거이론의 대표적인 분석법으로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김수연·구혜경, 2023: 92). 개방 코딩은 어떠한 이론적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도록 자료에 긴밀하게 밀착하는 과정이다(Charmaz, 2013: 110-111). 다음으로 진행한 축 코딩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나뉜 자료를 다시금 조직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Charmaz, 2013: 133).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은 초점 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하고 완전하게 자료를 범주화하며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으로 면접과 관찰을 넘나들며 면접 참가자들의 경험, 활동,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

(Charmaz, 2013: 129-130).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규칙에 따라 이론적 포화가 발생할 때까지 사전에 특정한 개념이나 분석틀,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자 자료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했다. 이때 이론적 포화는 범주 간 관계가 명확해지고 근거가 충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조성진, 2013: 250-251).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1차 코딩을 개방적으로 진행했고, 62개의 개념과 29개의 하위범주, 12개의 핵심범주를 도출했다.

3) 분석틀



〈그림 1〉 연구 분석틀

연구 분석틀은 비어내키(Biernacki, 1986)의 연구를 참고했다(Biernacki, 1986; Glaser, 1978; Glaser & Strauss, 1967; Charmaz, 2013: 286-28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를 살펴봄에 독서가 다

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며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남성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려 했다. 이를 위해 20-30대 남성이 다른 세대 및 성별과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항목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려 했다. 이를 기반으로 발견한 남성성을 유형화 및 비교 분석했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30대 남성 중 책을 읽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이미지와 다른 정체성 및 가치관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다른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면접 참가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장르의 책을 읽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와 이들의 남성성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살펴보며 다양한 남성성 유형을 탐색한다. 이들의 남성성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20-30대 남성이 다른 세대, 성별과는 다른 독특한 성향을 보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전통적 남성성 혹은 강한 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함께 살펴본다. 세 번째, 유형화가 가지는 한계와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남성성

면접 참가자	독서 행위	남성성(젠더 문제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	남성성 유형
동현, 현우, 강훈, 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서적 독서 • 삶에 대한 해상도 증가 •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 • 겸손함 함양 • 타인에 대한 이해 • 세상에 대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도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 • 자신과 다른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 주위 사람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식 • 전통주의적 남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강한 남성에 대한 비판 	연결 지향적 남성성
상수, 대훈, 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 주식 책 등 실용서적 위주 독서 • 개인에게 현재 필요한 걸 충족 • 과거에 이미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 •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독서 • 개인의 호기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는 것에 비판 • 개인의 자유 중시 •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음 • 20-30대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 특정한 생각이 주입되는 걸 경계 •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 • 강한 남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준식, 현규, 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 따라 독서 장르 및 목적 변화 • 생각이 정리되고 사유가 넓어짐 •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임 • 개인 지식을 축적 • 타인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은 쪼개어 볼 필요가 있음 •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 필요하지만 경계할 지점도 있음 •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젠더 문제 인식 •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함 •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절충적 입장 • 강한 남성에 대한 동경 	절충적 남성성

동현, 현우, 강훈, 준호의 독서 행위는 타인과 사회를 향한 연결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책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들도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연결 지향적 남

성성'이라 규정했다.

상수, 대훈, 명주는 독서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책은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걸 얻기 위한 도구였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보다 개인의 성장 및 변화, 지식 획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이라 규정했다.

준식, 현규, 태호의 독서 행위는 개인의 성장 및 변화와 사회연결적인 가치가 공존했다. 이들은 생계 활동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절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계를 하거나, 장단점을 나누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 역시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절충적 남성성'이라 규정했다.

1) 유형 분석

(1) 연결 지향적 남성성

① 인문 서적 독서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타인 및 사회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주로 사회과학 서적과 문학 위주로 읽었는데, 불평등, 페

미니즘, 다양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 책을 읽으며 책 내용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렸을 적부터 줄곧 문학과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온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동현), 마찬가지로 줄곧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온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우). 또한 과거에는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다가 2018년 페미니즘 열풍 이후 읽을 만한 작품이 생겼다는 생각에 현재는 문학 위주로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강훈), 성장기 시기에 문학과 철학 책을 읽다가 현재는 사회과학과 심리학 책 위주로 읽고 있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준호).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같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에서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 현우

한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잡티가 많이 보이게 된다고 답변했다(동현). 또한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회에서 정직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현우), 책을 통해 타인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답변(강훈), 타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준호).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이해와 상상,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한편 면접 참가자들은 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동네책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동현, 현우), 작은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한 면접 참가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준호), 이들이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생계활동 혹은 성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② 젠더 의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적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현우, 강훈, 준호). 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주위 사람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경향성과 달리 한 면접 참가자는 젠더적 의제에 부분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동현).

내 주변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더 평등할 수 있어야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준호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며 갈 길이 멀다는 답변도 있었고(현우), 마찬가지로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신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화하는 고착이 강화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핍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준호). 이는 개개인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도 연결되었다(강훈). 이들과 달리 한 면접 참가자는 남성이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오로지 젠더를 기준으로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동현).

이러한 인식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까지 필요하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현우), 사회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아져야 평등한 사회가 찾아올 거라는 답변도 있었다(강훈). 또한 구조적인 차별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준호). 다만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하거나(현우), 젠더뿐만 아니라 수행 능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동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소수자가 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 현우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의 답변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으로 존재했다. 한 면접 참가자는 인간은 언제까지 평평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결국 나이가 들면 노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신도 훗날 차별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 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현우). 또한 차별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 자신도 언젠가 소수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강훈), 성소수자 당사자인 면접 참가자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언급하며 법을 제재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준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판했던 면접 참가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옳은 걸 옳다고 해야 한다며 우호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동현).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남성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강한 남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때리는 폭력적인 남성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현우), 판타지 웹소설에서 여성이 성 상품화되는 모습을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인

문 서적을 읽으면서 전통적인 남성성이 점점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고 답변했다(동현). 이는 해당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로 분석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및 상상력, 사회연결적인 가치 추구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2)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① 실용 서적 독서를 통한 개인의 성장 및 변화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개인의 성장 및 변화를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주로 자기계발서, 경제서, 심리, 주식 책 등 실용 서적 위주로 읽었다. 이들은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현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면접 참가자는 과거부터 줄곧 심리학과 자기계발서를 읽었고(상수), 다른 면접 참가자는 과거에는 문학을 읽으며 삶의 철학적인 부분, 인생관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나름의 가치관이 생긴 이후 현재는 자기계발서, 주식 책 등 실용서 위주로 읽고 있었다(대훈). 한편 군대에서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다가 이후 철학, 신학 위주로 읽기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는 전공 서적을 읽었고, 현재는 주식 책 위주로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명주).

한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며, 책에서 읽은 걸 현실에 접목할 때 책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올라간다고 답변했고(상수), 다른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으며,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답변했

다(대훈). 또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는데(명주), 자신이 읽는 주식 책은 자료와 기술적인 부분 위주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은 주로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책을 통해 자신을 위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며 내 삶이 맞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거나(상수),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읽는다거나(대훈),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점에서(명주), 이들은 책을 개인 성장, 자기계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대훈은 과거에는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면 현재는 그 정보를 현실에서 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책을 읽는 목적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 서적을 읽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독서 행위는 생계 활동과 연관이 있었다.

② 젠더 의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적 의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상수, 대훈, 명주). 이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했지만, 타인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를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왜 윗세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나. 근데 왜 또 젊은 남자들 것을 뺏아서 여자들한테 주는가. - 명주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한 면접 참가자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평등하지 않다는 답변했다(대훈). 또한 지금의 청년 남성은 자신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큰 이득을 본 게 없음에도 윗세대

와 같은 잣대를 내밀며 자신들의 권리를 청년 여성들에게 뺏기고 있다고 했다(명주). 또한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주장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상수).

이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기업 대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상수).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도 있었고(대훈),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분야에서 신체 기준을 낮게 잡게 되면 앞으로 치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명주). 이들은 여성할당제를 비판하는 근거로 ‘능력’을 이야기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취를 할 수 있기에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으며, 스스로 못 한다고 판정한 상태에서 혜택을 주거나 신체 능력이 모자란 것을 성별 때문에 감안해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상수). 또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을 여성할당제로 풀어주게 되면 우리 사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 답변하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명주).

어떻게 보면 혐오할 권리도 자유잖아요. 그들을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본능적인 거부감도 있는 거죠. - 대훈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었다. 면접 참가자 중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상수),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혹은 법으로 위탁하는 경향이 짙어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대훈).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자유’

였다. 이들은 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도 하면서(대훈),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명주). 또한 한 면접 참가자는 어디까지를 혐오라 하고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라 할 건지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한편으론 혐오할 권리도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대훈).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남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도 몇몇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성에 대해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남자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주입식으로 많이 배웠다고 했다(상수).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전통적인 남성은 가족이라는 배를 항해하는 조타수이자 리더 역할이라며, 어두운 면도 있지만 높이 살 부분도 있다고 했다(대훈). 면접 참가자들은 남성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안정성, 다재다능함을 예로 들었다(명주). 또한 이들은 통제와 균형을 강조했는데, 남성성의 주요 특성인 공격성과 경쟁 등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통제하고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상수). 이러한 태도는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유사했는데, 이들은 남성성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하자면,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유, 공정,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3) 절충적 남성성

① 직업에 따른 독서 행위 변화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의 독서 행위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주 독서 장르의 경우, 한 면접 참가자는 과거 NGO에서 일할 때는 문학, 사회과학 등 인문 서적 위주로 읽다가 현재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마케팅 등 실용 서적 위주로 읽고 있었다(준식).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목적과 장르가 변화한 것이다.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과학, 문학, 사회과학 위주의 책을 읽다가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 관련 실용서 위주로 읽고 있었다(현규). 이와 달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심리학, 자기계발 위주로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태호).

경험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에 대한 경험의 확장, 저의 예술적인 분야에 대한 확장, 삶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 현규

이들의 독서 목적을 살펴보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동기가 바뀐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준식), 책을 통해 경험 및 지식의 확장, 예술의 확장, 자기 삶의 확장 등을 경험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아는 게 많아지며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는 답변도 있었는데(태호), 이를 통해 경청하는 자세가 생기고 타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답변은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았는데, 한 면접 참가자는 지적 허영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과거 NGO에서 일할 때는 공정 무역과 관련한 책을 읽으며 책 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했다(준식). 그러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계발서, 마케팅 등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목적이 변화했다. 다른 면접 참가자 역시 지식을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연결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태호). 이를 통해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에게는 앞서 분석한 두 남성성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젠더 의제에 대한 절충적 인식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준식, 현규, 태호). 이들은 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한편 악용 사례를 우려했고,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사안을 쪼개어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차별은 존재하고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답변도 있었고(현규), 페미니즘을 나누어 보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보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준식). 또한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을 보며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했지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은 페미니즘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태호).

초기에는 한번 물꼬를 터주는 정도에서는 필요한데, 그 이상으로 가면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 준식

이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면접 참가자는 한쪽 성이 주류인 곳에서 초반에 물꼬를 터주는 정도로는 필요하지

만 그 이상으로 가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고 했다(준식). 또한 여성 할당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조금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보다는 더 절실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이들은 초기에 물꼬를 트는 역할로 필요하다는 점과 남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는 점에서(준식) 여성할당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남녀를 떠나 절실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역차별에 대한 우려, 실용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점에서는(현규) 여성할당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법으로 제정하더라도 본능으로는 안 지킬 것 같은데. 내가 싫는데, 나도 나만의 권리가 있는데, 왜 해줘야 해, 이런 게 있어요. - 태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절충적인 태도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다만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두 명은 절충적인 성향이 강했지만(준식, 현규), 한 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태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이끌어 줘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준식), 어느 정도 급격하게 진행되며 물꼬를 터야 한다면 서도 차별의 뿌리를 쉽게 뽑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봤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답변도 있었다(현규). 한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성소수자를 싫어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군대 선임이 사위를 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배개를 가지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여러 상황을 목격하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다(태호). 이처럼 절충적 남성성에 해

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젠더적 의제에 대해 앞서 살펴본 강한 동의 유형과 강한 부정 유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복합적 인식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남성성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고(준식), 우두머리 수컷을 의미하는 신조어 ‘알파메일’을 이야기하며 몸이 크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과격한 수컷이 전통적인 남성성에 가깝다는 답변도 있었다(현규). 반면 한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전통적인 남성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태호). 한편 이들은 강한 남성성을 동경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한 면접 참가자는 영화 <범죄도시> 속 주인공처럼 파워풀하게 악당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답변했고(태호), 스스로를 기존의 거친 남성성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모습을 동경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종합하자면,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면서도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에 따라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2) 유형화의 함의

지금까지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와 남성성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토대로 유형화를 진행했지만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

가자 네 명 중 한 명은 인문 서적 위주로 책을 읽음에도 젠더 문제를 절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동현). 또한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한 명은 자기계발서 등 실용 서적 위주로 개인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며 독서를 했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인식했으며, 젠더 의제에서도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절충적 입장이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태호). 둘째, 같은 장르의 책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독서의 기능 및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중 한 명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소수자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준호), 이를 위해 심리학 관련 서적을 주로 읽었다.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주로 읽는 책을 인문 서적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선입견과 편견을 깨기 위해 책을 읽었다. 반면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중 한 명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심리학 서적을 주로 읽었으며, 자신이 주로 읽는 책을 실용 서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대훈). 이는 특정 장르의 책을 읽는 행위가 곧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보다, 같은 책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개인의 남성성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러 지점은 면접 참가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면접 참가자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남성성은 현실에서 책을 읽는 20-30대 남성과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 각 유형의 특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라 예상한다. 각 유형은 현실에서 실재하는 남성을 설명하기보다 면접 참가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패턴과 경향을 기반으로 도출한 추상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유형화의 목적은 다양한 남성성 스펙트럼의 몇몇 기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편 유형화

는 마치 특정 장르의 책을 읽으면 특정 유형의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서 행위와 남성성이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 특정 장르의 책을 읽으며 특정 남성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특정 남성성을 가진 개인이 특정 장르의 책을 읽는 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독서 행위가 기존의 남성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기존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제를 밝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본 연구는 그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남성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현실에서 많이 발현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세 가지 남성성 유형 중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가장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유형은 ‘연결 지향적 남성성’이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전통적인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하게 거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연결 지향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 서적을 읽었는데, 애초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문 서적을 읽는지, 아니면 인문 서적을 읽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선후관계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기존의 남성성을 수정하는 방향이든 혹은 강화하는 방향이든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20-30대 남성을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경제적 인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동네책방, 도서관 사서 등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동현, 현우, 강훈)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준호),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이들의 생계 활동 혹은 성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가장 유사했던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 서적을 읽고 있었으며,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 역시 직업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생각했을 때, 결국 세 유형 모두 독서 행위가 생계 활동과 연관이 있으며 단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남성성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처럼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문 서적을 읽을 동기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두 명은 직업적으로 혹은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될 때는 인문 서적을 읽었지만, 직업이 바뀌거나 활동을 그만둔 이후 실용 서적을 주로 읽기 시작했다(준식, 현규). 이는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가 생계 활동과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문 서적을 읽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인문 서적 독서는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남성성을 획득하거나 애초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 기존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특별한 조건과 환경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인문 서적을 읽다가도 직업의 변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실용 서적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의 사례를 생각했을 때(준식, 현규), 결국 우리 사회는 20-3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을 비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이 젠더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 등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 이외에 다양한 남성성을 제시하려 했다. 또한 이들 남성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발견되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이 왜 여전히 지배적인지 분석하려 했다. 독서는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개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한 목적으로 읽기에,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30대 남성에 주목했다. 이는 독서 행위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과 대조적이라는 분석에 기반했다.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0-30대 남성의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성은 젠더 의제에 대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했는데, 이때 젠더 의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남성성을 유형화 및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연결을 목적으로 인문 서적을 읽고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강하게 동의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남성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은 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용 서적을 읽고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한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세 번째,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는 복합적이었는데, 직업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에 대해서 비판과 동경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과 거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20-30대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인문 서적을 읽는 경우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실용 서적을 읽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20-30대 남성과 독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독서를 통해 변화한다는 인과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독서 행위의 이러한 특성은 면접 참가자들이 젠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와 연관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이라는 세 가지 남성성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는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가 특정 분야의 생계 활동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젠더 의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진행되며 면접 참가자의 다채로운 삶의 경험과 변화를 조명할 수 있었지만, 남성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10명이라는 표본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위해선 표본을 늘리거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복합연구 방법론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 장르의 경우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인식을 바탕으로 분류했는데, 인문 서적과 실용 서적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젠더 문제에 비판적인 인문 서적을 읽을 때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면접 참가자들의 계급이 독서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30대 남성 내의 다양성을 찾고자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으며 전통적 남성성과 강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인식만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명지. 2020.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실천과 구별짓기: 인스타그램 ‘전시 관람’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6): 1867-1882.
- 글래이저·스트라우스. 2011. 『근거이론의 발견』. 이병식·박상욱·김사훈(역). 서울: 학지사.
- 김경민. 2019. “국민과 인간 사이의 인권: 문학적 상상력의 인권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19(4): 97-124.
- 김미혜. 2022. “다문화 사회의 독서 능력에 대한 재인식.” 『독서연구』 65: 9-40.
- 김세화·최숙기. 2020.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의미 구조 분석: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6: 35-63.
- 김수아·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수연·구혜경. 2023. “근거이론을 적용한 20대 OTT 복수구독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소비자학연구』 34(5): 87-116.
- 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139-173.
- 김원정·김선아·정윤미·이성준·윤빛나리. 2021.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원·오세이·오경아. 2022. “MZ세대의 과시적여가소비성향별 여가정체성과 여가만족의 차이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6(4): 89-99.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미혜. 2023. “윤리적 채식주의 소비자의 채식소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34(5): 157-188.
- 샤마즈.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이상균·박현선·이재원(역). 서울: 학지사.
- 성수진. 2022. “독자반응이론의 반응범주 체계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133: 281-326.
- 안상수·김민순·윤민재·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엄기호. 2017. “보편성의 정치와 한국의 남성성.” 권김현영(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서울: 교양인.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전종윤. 2015. “독서공동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의 장(場) — 폴 리쾨르 철학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72: 1-22.
- 조성진. 2013. “코칭 연구를 위한 근거이론방법론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5(3): 247-259.
- 진시원. 2022. “20대 대선의 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법과사회』 70: 27-64.
- 천경록. 2014.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7-35.
- 천관율·정한울. 2019. 『20대 남자』. 서울: 시사N북.
-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과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116: 353-381.
- 최성용. 2019. “20대 남성 담론을 질문한다.” 『황해문화』 103: 93-113.
- 최숙기. 2018.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여성 독자와 남성 독자의 반응 양상 및 읽기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독서연구』 48: 165-201.
-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 189-224.
- 추지현. 2021. “청년 남성들의 젠더 인식 다층성.” 『한국여성학』 37(4): 155-193.
- 코넬.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역). 서울: 이매진.
- 한귀영. 2021.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정치와 공론』 29: 165-202.
- 한위성. 2017. “독자반응이론에서 본 문학 번역의 의미 구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7: 277-294.
- 한유정·김민지.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2): 101-161.
- 허성학. 2020.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 청년세대의 계급적 조건을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하여.” 『진보평론』 85: 244-275.
- KBS·한국리서치. 2021.6. <2021 세대인식 집중조사>.
- KBS·MBC·SBS. 2021.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 _____. 2022. <2022 대선 성별·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2) 국외문헌

- Biernacki, P. 1986. *Pathways from heroin addiction: recovery without treat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ahill, M. 1996.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allegorizing reader." *Theological Studies* 57(1): 89-97.
- Chodorow, Nancy J. 2002. "The Enemy Outside: Thoughts on the Psychodynamics of Extreme Violence with Special Attention to Men and Masculinity." Judith Kegan Gardiner(eds). *Masculinity Studies and Feminist Theory: New Direction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35-269.
- Connell, R. W. and James W. Messerschmidt. 2005.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19(6): 829-859.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이혜리 · 유선희. 2022. "'페미니즘 지지에 동의한다'는 2030 남성비율, 단 5.5%." <경향신문>. 2022.7.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61459011> [검색일: 2024.10.21.]
- 통계청.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Abstract

Divers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Act of Reading

Park, Jung-Oh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ading behavior of men in their 20s and 30s based on the existing debate that reading is related to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mpathy, and aims to present a masculinity other than the socially represente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such as anti-feminism, meritocracy, hatred of the weak, and pushing away of minorities, and to examine why the socially represente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is still dominant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men. The main o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the reading behavior an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The reading behavior was analyzed by looking at what books the interviewees read and for what purpose, and masculinity was analyz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the gender agenda and attitudes towards hegemonic masculinity, where the gender agenda was examin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feminism, quotas, and inclusive anti-discrimination laws, and hegemonic masculinity was examin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traditional masculinity and strong men. The study's key findings include First, existing arguments linking reading to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mpathy did not apply equally to men in their 20s and 30s, depending on which books they read and for what purpose. Second, the nature of this reading behavior was linked to how interviewees perceived the gender agenda and their attitudes toward hegemonic masculinity. Based on this, we categorized interviewees into 'connection-oriented masculinity', 'personal growth-oriented masculinity', and 'eclectic masculinity'.

Third, for interviewees with ‘connection-oriented masculinity’, which is a contrasting characteristic to that of socially consolidated men in their 20s and 30s, reading humanities books was associated with livelihood activities in a particular field or with LGBTQ identity. This suggest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verage man in his 20s and 30s to engage with humanities book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opportunities to perceive the gender agenda in a favorable light.

Key words: Masculinity, Reading behavior, Men in their 20s and 30s, Diversity

- 투 고 일 : 2024년 9월 13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30일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담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 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제 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pusan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계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계재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심사결과
3				계재
2	1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계재
1	2			수정 후 계재
	2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1	1		1	수정 후 계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계재 불가
			3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1	2	계재 불가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계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계재	계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계재 불가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계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계재 확정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계재 판정한 경우 계재 확정. 한 명만이 계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계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계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계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차는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키닌(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현,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현 외(2001) 또는 Cornell et al.(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현(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쉽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 (2) 정기간행물의 논문
 -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 (3) 편집한 책의 논문
 -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 (4) 학위논문
 -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제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35권 제1호 원고모집

『여성학연구』는 1988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는 2025년 4월 30일에 발행할 제35권 제1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고자격 : 석사 이상
- 원고주제 :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관련 논문
- 접수마감 : 2025년 3월 1일
- 심 사 료 : 6만원 (재심사시 심사료가 추가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31-3621-41 부산대 여성연구소
(게재시 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고방법 : 부산대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제출
- 연 락 처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1)510-1893, 팩스 (051)581-2478
홈페이지: <http://women.pusan.ac.kr>
웹메일: pusanwomen@pusan.ac.kr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편 집 위 원	김경연(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애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김인선(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문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미선(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안숙영(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추주희(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황정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기영(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創成科學研究科)
	Nam Yunju (Univ.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편 집 간 사	정서윤(부산대학교 사학과)

여성학연구 제34권 제2호

인 쇄 | 2024년 10월 31일

발 행 | 2024년 10월 31일

발 행 인 | 김남이

발 행 처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051-510-1893)

홈페이지 | <http://women.pusan.ac.kr>

이 메 일 | pusanwomen@pusan.ac.kr

인 쇄 처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4

ISSN 1598-950X

Articles

Applying Feminist Pedagogy in a Intersectionality Context

| Ahn, Ji-Young

Gender Power and Performativity through East Asian Creation Goddess Myths

| Yeo, Kyung-Mi

Divers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Act of Reading

| Park, Jung-Oh

